

사설

# 위대한 당의 향도를 받는 조선민족의 금지와의 영예를 길이 빛내여가자

오늘은 조선로동당이 자기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한 때로부터 70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날이다.

지금으로부터 70년전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신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전환을 가져온 역사적사변이었다. 참다운 애국애족의 당인 조선로동당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겨레는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강성번영의 시대를 펼칠 수 있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이 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군대와 인민을 현명하게 이끌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빛내이였으며 력사에 길이 빛날 부강조국건설의 커다란 업적을 이룩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창건된 첫날부터 장장 70년간 나라와 민족의 근본리익을 지켜 자주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왔다.

조선로동당은 언제나 자주적 대를 확고히 세우고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독자적인 판단과 주견에 따라 자기 인민의 요구와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기 식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이 땅 위에 자주, 자립, 자위로 빛나는 인민대중중심의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일떠세웠다. 온 사회의 사상적일색화를 실현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과정에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을 자주 정신으로 무장시키고 당과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을 이룩하여 사회주의위력을 끊임없이 강화하였다.

공화국이 그 어떤 세계적인 정치파동에도 끄떡없이 자주의 길, 사회주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정치사상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는것은 조선로동당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자주로선을 드림없이 관철하여온 자랑찬 결실이다.

조선로동당의 자주정치는 민족을 위한 참다운 애국의 정치이다. 적대세력들의 압력과 제재소동이 기승을 부리는 속에서도 공화국이 자기의 결심대로 실용위성도 씌울리고 높은 수준의 핵시험도 단행하는 등 주권국가의 자주적권리를 당당히 행사하고있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끝까지 옹호하고 실현하려는 조선로동당의 의지가 결코 빈말이 아님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로동당이 자주정치를 실시하고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화원을 이 땅위에 만발하게 펼쳐올수 있는것은 선군의 위력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나라와 인민의 운명을 책임졌다는 숭고한 사명감을 안고 조선로동당이 시종일관 견지해온 선군로선을 계승발전시켜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확립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에 의해 어제날 힘이 약해 강대국에 짓밟히고 나라

마져 빼앗겨야 했던 그 《약소국》이 오늘은 세계에 당당히 그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백두산강국으로 빛을 뿌릴수 있게 되었다.

조선로동당은 지난 70년간 절세위인들의 인민위천의 리념을 구현하여 인민에게 충실히 복무하는 인민중중, 인민사랑의 력사를 펼쳐왔다.

조선로동당의 창건은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어머니당의 탄생이었다. 인민대중중심의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되는 인민의 리익과 념원실현을 투쟁목표로 내세우고 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을 끝간으로 하여 창건된 당이 조선로동당이다. 그때로부터 조선로동당은 인민의 운명과 미래에 대한 숭고한 책임감을 안

정기파동에도 끄떡없이 자주의 길, 사회주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정치사상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는것은 조선로동당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자주로선을 드림없이 관철하여온 자랑찬 결실이다.

조선로동당의 자주정치는 민족을 위한 참다운 애국의 정치이다. 적대세력들의 압력과 제재소동이 기승을 부리는 속에서도 공화국이 자기의 결심대로 실용위성도 씌울리고 높은 수준의 핵시험도 단행하는 등 주권국가의 자주적권리를 당당히 행사하고있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끝까지 옹호하고 실현하려는 조선로동당의 의지가 결코 빈말이 아님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로동당이 자주정치를 실시하고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화원을 이 땅위에 만발하게 펼쳐올수 있는것은 선군의 위력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나라와 인민의 운명을 책임졌다는 숭고한 사명감을 안고 조선로동당이 시종일관 견지해온 선군로선을 계승발전시켜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확립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에 의해 어제날 힘이 약해 강대국에 짓밟히고 나라

이 세상 어머니들의 사랑을



인민을 위한 길에 함께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다 합쳐도 비길수 없는 대해 같은 사랑을 끝없이 베풀어주는 자애로운 어머니당의 모습은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만이 아닌 겨레의 가슴속에 뜨겁게 새겨져있다.

조선로동당은 지난 70년간 조국통일을 최대의 민족적과제로 내세우고 민족의 자주통일운동을 승리의 한길로 힘있게 떠밀어왔다.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것을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책임진 자기의 최대의 과업으로 내세운 조선로동당은 시종일관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견지하고 력사발전의 매 단계마다 현명한 조국통일로선과 방침들을 제시하여 겨레에게 통일일로 나아가는 밝은 앞길을 밝혀주었다.

위대한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조국통일위업에 헌신하신 김일성주석의 불멸불후의 로고와 헌신에 의해 불멸의 통일대강인 조국통일3대헌장이 마련되어 오늘도 겨레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통일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끄시며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 10.4선

언을 마련하시어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펼쳐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우리 겨레는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은 또 한분의 걸출한 령도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진두에 모시어 줄기차게 전진하고있다. 반통일대결세력들이 북침전쟁책동에 미쳐날뛰 때 판문점에 대한 력사적인 시찰을 단행하시어 원수들의 머리에 철추를 내리시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로선을 제시하시어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하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올해신년사에서 서전체 조선민족이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 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올 해를 자주통일의 대토로를 열어놓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일데 대하여 열렬히 호소하시었다.

최근 일촉즉발의 긴박한 정세속에서도 조선로동당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진 숭고한 사명감을 안고 자기의 령

이 노래하여왔다. 해방된 이 땅위에 당창건의 우리와 같은 선언이 울려 퍼진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르고 세기도 바뀌었지만 민족의 자주위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인민의 만복이 쫓겨는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우고 세기를 이어오는 조미대결전을 결속하며 자주통일의 그날을 앞당겨 오기 위해서도 아직 험난한 가시덤불길을 헤쳐넘어야 한다. 그럴수록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주는 당의 향도는 더욱 필수불가결한것이다.

로동당이 없으면 자주적인민 존엄과 영예도 없고 민족의 밝은 래일도 있을수 없다. 온 겨레는 위대한 당의 향도를 받는 조선민족의 금지와 자부심을 격조높이 간직하고 절세위인의 애국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나가야 한다.

조선로동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민족의 만년재보로 더욱 빛내이며 수령님들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주체조선, 선군조선의 광휘로운 력사의

도력을 발휘하여 나라앞에 닦은 위

힘찬만한 사태를 제때에 평정함으로써 전쟁의 참화로부터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지켜왔다. 공화국의 주동적인 노력에 의해 조선반도의 정세가 지금 완화와 판계개선으로 하고있는 데 대해 온 겨레가 기뻐하며 지지와 찬란을 보내고 있다.

참으로 애국 애족으로 일관되고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70년 력사의 위대한 당이 있을 때 나라와 민족의 운명도 지켜지고 빛난다는 력사의 진리를 뚜렷이 새겨주고있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오래전부터 우리에게는 당복이 있다며 위대한 당의 향도와 자부심을 격조높이 노래하여왔다. 해방된 이 땅위에 당창건의 우리와 같은 선언이 울려 퍼진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르고 세기도 바뀌었지만 민족의 자주위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인민의 만복이 쫓겨는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우고 세기를 이어오는 조미대결전을 결속하며 자주통일의 그날을 앞당겨 오기 위해서도 아직 험난한 가시덤불길을 헤쳐넘어야 한다. 그럴수록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주는 당의 향도는 더욱 필수불가결한것이다.

로동당이 없으면 자주적인민 존엄과 영예도 없고 민족의 밝은 래일도 있을수 없다. 온 겨레는 위대한 당의 향도를 받는 조선민족의 금지와 자부심을 격조높이 간직하고 절세위인의 애국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나가야 한다.

조선로동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민족의 만년재보로 더욱 빛내이며 수령님들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주체조선, 선군조선의 광휘로운 력사의

집대성이며 통일강성국가건설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만능의 백과전서이다.

우리 겨레는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고 현명하게 이끄시어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 주신 절세위인들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기고 수령님들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철저히 관철하여 하루빨리 이 땅 위에 통일번영하는 강국을 일떠세워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민족자주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역세계 싸워나가야 한다.

우리 겨레가 운명과 미래를 다 맡기고 따르는 조선로동당의 품은 곧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품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얼마전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에서도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70년 력사와 업적을 긍지높이 총화하면서 당의 령도밑에 백두에서 개척된 민족자주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의 령도를 받들고 따르는 길에 나라와 민족의 무궁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 찬란한 래일도 있다.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개선하며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자주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민족의 분열이 장장 70년을 헤아리는 오늘 민족이 일구워 심 바라는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면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개선해나가야 한다. 조국통일위업은 북남관계 개선과 발전을 전제로 한다. 최근 북남사이에는 고위급진급 접촉합의로 관계개선의 새로운 기류가 흐르고있다. 북과 남이 어렵게 마련한 합의를 소중히 여기고 풍성한 결실로 가꾸어 가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대화와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뼈라살포, 반북 《인권》소동 등 일체 도발적인 행동들과 북침전쟁소동들을 중지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이며 민족의 대단합이자 겨레가 바라는 조국통일이다.

온 겨레는 북남공동선언과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안팎의 분열주의세력의 대결과 전쟁책동을 짓부시며 련대와 단합으로 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우리 민족이 가는 앞길에는 의연히 많은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지만 천출위인이 계시고 공화국 군대와 인민의 혼연일체의 위력이 있어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위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다.

온 겨레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삼천리강토위에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 것이다.

집대성이며 통일강성국가건설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만능의 백과전서이다.

우리 겨레는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고 현명하게 이끄시어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 주신 절세위인들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기고 수령님들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철저히 관철하여 하루빨리 이 땅 위에 통일번영하는 강국을 일떠세워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민족자주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역세계 싸워나가야 한다.

우리 겨레가 운명과 미래를 다 맡기고 따르는 조선로동당의 품은 곧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품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얼마전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에서도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70년 력사와 업적을 긍지높이 총화하면서 당의 령도밑에 백두에서 개척된 민족자주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의 령도를 받들고 따르는 길에 나라와 민족의 무궁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 찬란한 래일도 있다.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개선하며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자주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민족의 분열이 장장 70년을 헤아리는 오늘 민족이 일구워 심 바라는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면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개선해나가야 한다. 조국통일위업은 북남관계 개선과 발전을 전제로 한다. 최근 북남사이에는 고위급진급 접촉합의로 관계개선의 새로운 기류가 흐르고있다. 북과 남이 어렵게 마련한 합의를 소중히 여기고 풍성한 결실로 가꾸어 가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대화와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뼈라살포, 반북 《인권》소동 등 일체 도발적인 행동들과 북침전쟁소동들을 중지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이며 민족의 대단합이자 겨레가 바라는 조국통일이다.

온 겨레는 북남공동선언과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안팎의 분열주의세력의 대결과 전쟁책동을 짓부시며 련대와 단합으로 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우리 민족이 가는 앞길에는 의연히 많은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지만 천출위인이 계시고 공화국 군대와 인민의 혼연일체의 위력이 있어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위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다.

온 겨레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삼천리강토위에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 것이다.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 사회주의선경마을로 훌륭히 일떠선

### 라선시 선봉지구 백학동을 돌아보시었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며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속에 큰물피해를 완전히 가신 라선땅에서 사회주의만세소리, 로동당만세소리, 일심단결의 만세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돛을 맞으며 사랑하는 인민들에게 행복의 보금자리를 안겨주시기 위하여 또다시 머나먼 하늘길, 령길, 배길을 달려 기적의 선경마을 라선시 선봉지구 백학동을 찾으시었다.

지난 9월 조국의 최북단 라선시큰물피해 복구전투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당을 따라 전체 군대와 인민이 사선의 고비도, 험난한 진펄길도 함께 헤쳐온것처럼 군대와 인민이 힘을 합쳐 라선시피해 복구전투에서도 세상에 없는 군민단결의 위력을 다시금 과시하자고 하시면서 피해 복구전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지말씀을 심장마다 새겨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군대와 인민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한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라선시 선봉지구 백학동지역에 1,300여세대의 단층살림집들이 준비하게 일떠서고 청계동, 유현동, 관곡동지구 등 여러곳에 500여세대의 소층, 단층살림집들이 주변풍치와 어울리게 새로 건설되였다.

라선시피해 복구전투가 승리적으로 계속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TV와 의복류, 경질유리그릇, 식료품은 물론 성냥과 위생종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생활필수품을 보내주시였으며 오늘 새집들이를 앞둔 백학동을 찾으시어 인민사랑의 뜨거운 자욱을 새기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지휘관들과 일군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당창건기념일전으로 라선시피해 복구를 끝낼데 대한 명령을 관철하느라 수고들이 많았다고, 자신께서 새로 건설한 살림집들을 먼저 돌아보아야 마음이 놓일것 같아 찾아왔다고 하시면서 오늘 여기로 오는 발걸음이 정말 가벼웠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살림집



들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및 새집들이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새로 건설한 살림집들이 본래집들보다 좋은가, 구들에 불이 잘 드는가, 물은 잘 나오는가를 세심히 알아보시고 모든 살림집들을 인민들이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훌륭한 보금자리로 건설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인민들이 새집들이를 하는 자기들에게 당에서 TV를 비롯한 생활필수품을 선물로 보내준데 대하여 걱정을 금치 못하고있다는데 인민들이 좋아한다니 자신께서도 기쁘다고, 이런 멋에 혁명을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인민군대가 백학동에 새로 일떠세운 마을이 볼수록 멋있다고 하시면서 살림집지붕과 외장재색갈도 보기 좋고 주택구역의 도로와 옹벽, 배수로공사도 잘했다고, 터밭도 조성해주고 떨감까지 마련해 놓았는데 이제는 이것이 하나의 전통으로 되였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군인건설자들이 고향집, 고향마을을 꾸리는 심정으로 큰물피해 복구전투를 정말 잘했다고, 이번 전투는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우리 인민군대의 사상정신적, 도덕적품모를 더욱 힘있게 과시하는 과정으로 되였다고 하시면서 이제 남은것은 새집들이

라고, 군인들이 인민들의 새집들이를 도와주는것을 비롯하여 마무리를 잘하고 귀대해야 한다고 당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한쪽의 그림처럼 펼쳐진 백학동 살림집들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면서 황홀하다고, 기쁜 일이면 이처럼 기쁜 일이 또 어디에 있으며 보람이면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늘 강조하는것이지만 인민들을 위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불과 3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또 하나의 선경마을이 생겨났다고 못내 기뻐하시면서 이는 당에 대한 충정의 마음과 인민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지닌 우리 인민군대만이 창조할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적이라고, 자신께서는 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 당정책관철의 척후대인 인민군대의 최고사령관으로서의 긍지로 자부심을 한껏 느끼게 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라선시 피해 복구전투는 전례없이 방대하고 아름다운 전투였지만 자신께서는 인민군대를 굳게 믿었다고 하시면서 이 땅우에 자기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며 조국과 인민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한 인민군대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력사의 한페이지를 또 한번 자랑스럽게 썼다고, 우리 당 투

쟁력사는 군대와 인민의 애국충정의 피와 땀으로 씌여지고 있다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았던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보니 이제는 마음이 놓인다고,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새 집들을 받아안게 될 인민들은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하고 하시면서 당의 명령을 결사 관철함으로써 당에 대한 인민들의 소중한 믿음을 지켜주고 당의 권위를 보위한 군인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건설에 참가한 전체 부대들에 조선로동당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국의 북변땅에서 이룩된 성과는 당과 대중의 일심단결, 혼연일체의 위대한 승리이라고 하시면서 군민대단결보다 강한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이런 힘

이 있었기에 자연의 혹독한 전횡도 물리칠수 있었고 전대미문의 피해도 단숨에 가질수 있었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라선전역에서 발휘한 인민군인민들의 위훈을 생각하면 가슴이 후터워지고 세상에 대고 자랑하고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다고, 기념사진을 찍고 가야지 그대로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수만명의 군인들이 한자리에 모일 때까지 무려 1시간 30분동안이나 기다려주시었다.

그리하여 라선땅에서는 최고사령관의 두리에 어깨성을 쌓은 군인들이 자기들이 건설한 살림집들을 배경으로 기쁨에 울고 웃으며 기념사진을 찍는 세상에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숭고한 화폭이 펼쳐졌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군인들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며 물목이 터진듯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라신빠스를 따라섰고 그들에게 손을 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눈가에는 뜨거운것이 고여올랐다.

한없이 숭고한 인민관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서 불면불휴의 로고와 헌신을 다 바치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라선땅에 아로새기신 인민사랑의 자욱은 조선로동당력사와 더불어 세세년년 길이 전하여 질것이다.

본사기자





# 김정은

##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조선로동당 창건 70돛에 즈음하여  
주제 104 (2015)년 10월 4일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은 조선로동당 창건 70돛을 가장 경사스러운 혁명적명절로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조선로동당은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어 혁명과 건설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온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이다.

조선로동당의 위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역사적 위업, 주체혁명위업이다.

조선로동당의 70년력사는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위업의 정당성과 필승불패성을 과시한 자랑찬 승리의 역사이다.

조선로동당은 창건후 70성상 주체혁명위업을 수행하는 역사적투쟁속에서 주체의 혁명적당,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으로 강화발전되었으며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왔다.

혁명과 건설의 승패는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어떻게 건설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어떻게 높여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주체적당건설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 계승성이 확고히 보장된 수령의 당,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건설되고 강화발전되었다.

혁명적당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실현해나가는 수령의 당이며 당건설에서 기본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고 그 계승성을 실현하는것이다.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전당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고 수령을 중심으로 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실현하며 전당이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게 하는것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고 당건설과 당활동을 오직 김일성-김정일동지의 요구대로 진행하여 당을 수령을 유일중심으로 한 위대한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로 되게 하였다.

수령을 중심으로 한 통일단결을 이룩하는 것은 조선혁명의 복잡성과 간교성으로 하여 창건 첫날부터 우리 당앞에 더욱 중대한 문제로 나섰다. 우리 당은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 종파주의와 온갖 기회주의조류를 극복하고 당의 통일단결을 이룩하였으며 수령을 중심으로 한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심화시켜왔다.

우리 당은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수령의 유일적결론에 따라 처리해나가는 체계를 세웠으며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수령이 제시한 로선과 정책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확립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전당김일성주의 화로선을 제시하시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심화시켜나가도록 하신것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데서 결정적전환의 계기로 되었다. 조선로동당을 명실공히 수령의 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킨것은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위대한 업적이다.

우리 당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계승문제를 옳바로 해결하여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대를 이어 계승되게 하였다.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계승문제는 당과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며 혁명적당건설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

이다. 력사는 수령의 옳바른 령도밑에 혁명을 성과적으로 전진시켜온 당이라 하더라도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옳게 계승하지 못하면 당이 변질되고 결국에는 혁명의 좌절을 가져오게 된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기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천리혜안의 예지로 멀리 앞을 내다보시며 혁명위업을 계승해나갈 령도자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다지고 령도체계를 세우도록 하여 수령의 사상과 령도가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되게 하시었다.

대를 이어 탁월한 수령을 모시고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 계승성을 보장한것은 조선로동당의 전투적위력과 불패성의 근본요인으로 되었다.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대를 이어 확고히 계승함으로써 우리 당은 사회주의나라 집권당들의 사상적변질과 좌절의 역풍속에서도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혁명적본태를 변함없이 고수해올수 있었으며 혁명과 건설을 능숙하게 조직령도하여 거창한 사회적변혁들을 이룩할수 있었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건설되었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서 수령, 당, 대중은 운명공동체이다. 당과 수령의 령도를 떠나서는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없는것처럼 당도 인민대중과 떨어져서는 위대한 정치조직으로 될수 없으며 정치적향도자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없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노동자, 농민, 지식인을 구성성분으로 하는 대중적당으로 건설하고 당의 모든 활동을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는데로 지향시켜 우리 당이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당을 인민대중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피는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인 인덕정치, 광복정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당과 인민대중이 끊을수 없는 혈연의 정으로 튼튼히 이어지게 하시었다.

우리 당은 어머니의 심정으로 사람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따듯이 보살피주며 일편단심 당을 충직하게 받아들여온 우리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왔으며 일군들이 세도와 관료주의를 없애고 인민의 총복으로 일해나가도록 이끌어주었다.

우리 당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감으로써 우리 인민들은 당의 품을 진정한 어머니 품으로 여기고 자기들의 운명과 미래를 전적으로 의탁하고있으며 당의 믿음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충정을 바쳐가고있다.

인민에 대한 당의 믿음과 사랑, 당에 대한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에 기초한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 바로 여기에 우리 혁명대오의 공고성과 위력의 원천이 있으며 모든 승리의 기본담보가 있다.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의 위력이 있어 우리 당은 승리의 신심드높이 혁명앞에 가로놓인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뚫고 전진할수 있었으며 자기의 성스러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해올수 있었다.

조선로동당은 주체의 령도방식으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 세련된 령도력을 지닌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었다.

령도방식은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을 좌우

하는 기본요인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인민대중의 힘으로 풀어나가는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창조하고 구현하여오신 조선로동당의 전통적인 령도방식이다.

인민대중의 힘은 곧 사상의 힘이며 집단주의의 위력이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의사를 집대성하여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인민대중의 사상을 발동하여 관철하는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였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에서 사상이 기본이며 사상의식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의 사상론을 구현하여 인민대중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기 위한 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나갔으며 혁명발전의 단계마다 여러가지 형태의 대중운동을 널리 조직 전개하여 인민대중의 집단주의적위력, 대중적영웅주의가 높이 발휘되도록 하였다.

인민대중에 의거하고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고조를 일으켜나가는 투쟁과정에 우리 당은 비상한 조직력과 령도적수완을 지닌 세련된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었다.

조선로동당의 선군혁명령도는 군사를 앞세우고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력으로 하는 우리 식의 독특한 혁명령도방식이다.

우리 당은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고 인민이라는 독창적인 선군혁명원리에 기초하여 인민군대를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사상과 신념의 강군,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켜왔다. 전군을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가 확고히 실현되고 인민군대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맨 앞장에서 결사관철해나가는 백두산혁명강군으로 튼튼히 준비됨으로써 우리 당의 정치군사적 기반이 철통같이 다져지게 되었다.

당과 인민군대의 정예화가 실현되고 군민대단결이 강화되었으며 전당, 전민이 인민군대의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으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게 되었다.

독창적인 선군령도 주체혁명위업을 전진시켜나가는 투쟁과정에 우리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은 비상히 강화되게 되었다.

혁명적당건설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온 조선로동당의 당건설경험은 자주시대 혁명적당건설위업수행의 산모범으로 된다.

조선로동당은 지난 70년동안 준엄하고 복잡한 력사의 풍파를 뚫고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왔다.

우리 당이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이끌어온 과정은 제국주의와 지배주의, 수정주의,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는 침예하고 심각한 정치투쟁, 계급투쟁이었으며 참다운 인민의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전인미답의 길을 열어나가는 어려운 투쟁이었다.

우리 당은 여러 단계의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전 과정에 그 어떤 기존리론이나 공식을 따르지 않았으며 오직 독창적인 주체의 한길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왔다.

자주, 선군,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조선혁명의 좌표이고 기본주조이다. 자주, 선군, 사회주의,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근 한 세기에 걸쳐 이룩하신 고귀한 업적과 전통, 풍부한 경험이 집대성되어있으며 우리 혁명의 근본원칙과 곧바른 진로가 뚜렷이 밝혀져있다.

조선로동당은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로선과 원칙을 백년대계의 전략으로 틀어쥐고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여 조국과 인민앞에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주체혁명위업을 향도해나가는 력사적인 투쟁속에서 우리 인민을 존엄높은 자주적인민으로, 혁명의 위력한 주체로 키웠다.

인민대중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자주적인 주체로 키운 여기에 조선로동당이 이룩한 가장 위대한 업적이 있다.

인민대중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고 자주위업수행의 담당자이지만 혁명적당의 옳바른 령도에 의해서만 참다운 혁명의 주체로 될수 있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언제나 여기에 선차적힘을 넣었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고 당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조직적으로 묶어세워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결합시키고 그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발양시켜 혁명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우리 당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조로 체득하고 당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있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 있다.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당이 구상하고 일단 결심하면 그것은 곧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지대로, 실천으로 되고있다.

특히 새 세대 청년들이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 혁명의 계승자로 자라나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돌격대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으며 우리 나라는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으로 자랑떨치고있다. 우리 당의 력사에는 청년들을 시대의 영웅으로, 당의 척후대, 익측부대로 키운 자랑찬 력사가 응축되어있다.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당의 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이런 훌륭한 군대와 인민, 이런 훌륭한 청년들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크나큰 긍지이고 자랑이며 바로 여기에 조선로동당이 지난 70년력사에 오직 승리만을 새겨온 비결이 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상이 실현되는 주체의 사회주의를 건설한것은 조선로동당이 이룩한 역사적업적이다.

사회주의는 근로인민대중의 리상이며 사회주의를 건설하는것은 혁명하는 당들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의 리상에 맞는 진정한 사회주의의 길을 새롭게 개척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전 과정에 주체의 혁명적로선과 원칙을 일관성있게 견지하였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우리 인민의 자주적지향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갔다. 우리 당은 외세의 간섭과 압력을 배격하고 변함없이 주체의 사회주의한길을 따라 곧바로 전진하였으며 고난의 행군시기와 같은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도 우리의 사회주의를 압살하려는 적대세력들의 악랄하고 끈질긴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면서 사회주의건설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왔다.

조선로동당의 주체적로선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건설된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이 되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가 최대로 실현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이다.

(4면으로 계속)



# 김정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 조선로동당 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주제 104 (2015)년 10월 4일

(3면에서 계속)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대중이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있으며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이 최우선, 절대시되는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가 실시되고있다. 우리의 사회주의가 진정으로 인민을 위한 사회주의,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인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를 자기의 생명으로, 생활로 받아들이고있으며 사회주의화원을 더 잘 가꾸고 사회주의강성국가로 더 빨리 일떠세우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고있는것이다.

당의 현명한 령도와 당에 충실한 인민대중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우리 나라는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존엄높은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일떠섰으며 사회주의강국의 위력을 떨치며 새 세기 지식경제강국,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조선로동당은 군대와 인민을 령도하여 세기를 이어 계속된 제국주의와의 대결전에서 승리의 전통을 새기며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제국주의가 있는 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은 적들과의 첨예한 대결을 동반하게 된다. 세기와 세대를 이어가며 장구한 기간 반제반미투쟁의 전초선으로 되어온 우리 나라에서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우리는 군사중시로선과 원칙을 일관하게 들어쥐고 혁명무력건설과 나라의 방위력강화를 제일차적인 국사로 내세웠으며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강위력한 방위력에 의거하여 미제와의 계속되는 대결전에서 련전련승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청소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국해방전쟁에서 력량상대비가 안되는 강대한 적,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제를 타승하는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는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군사사상과 탁월한 군사전략의 승리였으며 귀중한 조국을 위하여 한복숨 서슴없이 바쳐 싸운 인민군대와 인민들의 영웅적인 조국수호정신이 안아온 승리였다.

우리 당은 전후 수십년동안 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대결전에서 선군의 위력, 군사강국의 위력으로 적들의 계속되는 침략기도를 걸음마다 짓부시고 언제나 승리하였다.

최근 일촉즉발의 긴박한 정세속에서 우리 당은 자기의 령도력을 발휘하여 조국앞에 닥쳐온 위험천만한 사태를 제때에 평정함으로써 전쟁의 참화로부터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지켜냈다. 첨예한 대결전에서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낸것은 우리의 정신도덕적우세와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군민대단결의 위력이 안아온 커다란 승리이다.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기치따라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조선로동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과 고귀한 경험은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은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이 땅위에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므로써 국제무대에서 공화국의 존엄과 지위를 비상히 높이였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하였다.

렬강들의 각축전장으로 수난받던 조선반도의 지정학적수명론은 이미 과거사로 되였으며 사회주의 우리 공화국은 자기 운명의 주인, 지역과 세계정세발전의 주체로서의

권리와 영향력을 당당히 행사하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아무리 발악하여도 일심단결의 위력과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무진막강한 방위력에 의거하여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을 가지고 우리 식으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다그쳐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고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게 되었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의 필연성을 실천으로 확증하였다.

우리 당은 최악의 조건과 환경속에서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은 정의이며 사회주의는 과학이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조선로동당은 자기의 력사적인 투쟁을 통하여 지구위에 사회주의와 정의가 살아있고 그 힘은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보다 더 강하며 반제자주,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 시대적흐름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수 없다는 력사의 진리를 뚜렷이 실증하였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며 조선로동당의 령도가 있는 한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라는것이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70년 력사의 총화이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는것은 조선로동당의 력사적사명이며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조선로동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며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다.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가리키는 주체의 한길로 변함없이 끝까지 나아가야 한다.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으로 강화발전시켜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과 뜻대로 당건설과 당활동을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야 한다. 당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당건설사상과 유훈을 생명선으로 들어쥐고 당치의 드림도 없이 끝까지 관철하며 수령님의 령도업적을 빛내기 위한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아가야 한다.

전당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한다.

전당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일색화된 사상과 신념의 결정체로 만들어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방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른다는 억척불변의 신념을 지니고 온갖 이색적인 사상조류들을 반대하는 비라협적인 투쟁을 벌려 당의 사상적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당의 통일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조직규율을 확립하여야 한다.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 단결력은 혁명하는 당의 생명이며 필승불패의 위력의 원천이다. 전당이 당중앙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치며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당중앙에 집중시키고 당중앙의 유일적결론에 따라 처리하며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당안에 제정된 질서대로 사업하고 생활하는 혁명적규율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당의 사상과 정책을 결사옹위하고 결사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영원한 전통으로 이어나가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에서 당정책관철을 위한 사

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중도반단함이 없이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를 더욱 공고히 하여야 한다.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는 우리 당의 공고성과 생명력의 원천이며 조국사수, 혁명보위의 최강의 무기이다.

전당이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 모든 일군들이 수령님식, 장군님식 인민관을 지니고 인민을 하늘같이 여기고 내세우며 언제나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고풍을 같이하면서 인민을 위하여 뛰고 또 뛰는 참된 인민의 충복이 되어야 한다.

전당적으로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 주체의 혁명적당, 어머니당의 본래를 고수하고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보장하여야 한다.

당의 령도밑에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을 확고히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한 총로선은 사회주의건설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로선이다.

우리 인민정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인민정권이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 창조적능력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보호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정권의 사업체계와 방법을 개선하고 사회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경제조직자적기능을 강화하여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추동하여야 한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해나가는 기본방식이다.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 인간개조, 자연개조를 성과적으로 실현하며 사회관계를 사회주의강성국가의 요구에 맞게 발전완성시켜야 한다.

당의 사상중시, 군사중시, 과학중시로선을 틀어쥐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

우리 혁명의 제일보루인 정치사상진지를 튼튼히 다지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중에서 5대교양의 힘있게 벌려 그들이 언제 어디서나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우리의 일심단결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가 되게 하며 투철한 반제계급의식을 지니고 우리의 계급진지, 혁명진지를 반석같이 다져나가는 계급의 전위투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내부로부터 허물어보려는 적들의 온갖 책동을 예리하게 가려보고 각성있게 대하여 사회주의화원에 자본주의독초의 사소한 싹도 절대로 돌아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전사회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도덕과 생활방식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서로 돕고 이끄는 건전하고 화목한 사회주의대가정의 미풍을 활짝 꽃피워나가야 한다.

조국의 미래와 혁명의 전도는 새 세대 청년들을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모든 당조직들이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과 로선을 틀어쥐고 청년들과의 사업에

큰 힘을 넣어 청년들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그들모두가 우리 당의 사상적혈통, 신념의 피를 순결하게 이어받아 당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하는 혁명의 전위투사, 선군청년영웅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위적국방력은 선군조선의 존엄이고 자주권이며 승리의 담보이다. 당의 자위적군사로선과 병진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인민군대에서 최고사령관의 령군체계와 혁명적군풍을 철저히 세우고 강철같은 군기를 확립하며 전투정치훈련을 강화하여 모든 군인들을 일당백의 용사로, 모든 부대를 최정에전투대로 만들어야 한다.

인민군대는 언제나 우리 혁명의 제일선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며 강성국가건설의 전구들마다에서 단숨에의 투쟁기풍과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높이 떨쳐야 한다.

우리 식의 위력한 최첨단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자위적핵억제력을 부단히 강화해나가며 전민항전준비를 철저히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현대과학기술의 힘으로 경제강국과 문명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자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이다. 과학기술발전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사회주의강성국가의 면모를 완전히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이 제시한 혁명적경제로선과 정책을 튼튼히 틀어쥐고 인민경제 선형부문을 강화하는데 힘을 집중하면서 경제강국건설 목표를 단계별로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당의 구상과 의도에 맞게 인민생활향상에 선차적힘을 넣어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혜택을 마음껏 누리며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과 보건, 체육, 문학예술을 비롯한 모든 문화분야를 사회주의문명국의 높이에 올려세워 21세기 새로운 문명개화기를 열어 나가야 한다.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실현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책임진 우리 당앞에 나선 최대의 과업이다. 우리는 세기를 이어오는 민족분열의 비극을 더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북과 남이 합의한 조국통일3대원칙과 력사적인 6.15공동선언, 10.4선언에서 천명한대로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에서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여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필생의 뜻과 유훈을 관철하여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고 이 땅위에 강성부흥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워야 한다.

우리 당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관철하여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진보적인인민들과의 친선과 단결을 강화하며 강권과 전횡을 일삼는 제국주의, 지배주의세력들의 침략과 간섭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앞에는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과감히 헤치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 무겁고도 성스러운 임무가 나서고있다.

전체 군대와 인민이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

조선로동당은 앞으로도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존엄과 위력을 만방에 떨치며 백승의 력사만을 아로새겨갈것이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성스러운 위업은 영원히 필승불패이다.



# 로 동 당 만 세 소 리 울 러 퍼 집 니 다

10월의 하늘가에 로동당만세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절세위인의 사랑이 뜨겁게 수놓아진 저 멀리 북변의 라선땅으로부터 외진 산간벽촌 어디라 할것없이 인민들 누구나 평양하늘가로 마음의 창문을 열고 목청껏 부르고 심장으로 부르는 조선로동당 만세소리가 저의 귀전에도 메아리쳐옵니다.

남녘의 차디찬 감방에서 《조선로동당 만세!》이 일곱글자를 벽에 새겨놓고 신념의 좌표로 우러르며 싸워온 지희들이어서 그 만세의 환호성이 더욱 감명깊게 새겨지는가 싶습니다.

당창건 70돐을 경축하는 축포성마냥 터져오르는 로동당만세소리, 정녕 그것은 우리 당의 위대함과 불패성의 힘있는 시위이고 당과 운명의 피줄을 잇고 사는 우리 인민만이 터칠수 있는 신념의 웨침입니다.

\* \* \*

만세는 인간감정의 최고표현이라 하였습니다.

환희와 격정의 세찬 설레임, 사변적인 의의나 경사앞에 마냥 가슴부풀며 터치는 격동된 심정의 분출이 바로 만세입니다.

소급해보면 국가와 민족의 장래번영을 기원하여 웨친 만세도 있었고 처절한 싸움터에서 병사들이 총천한 기세로 부른 만세도 있었으며 경축의 날을 맞아 터친 만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범상한 의미로는 새겨볼수 없는것이 로동당만세에 높뛰는 숭고한 진리입니다.

우리 당이 얼마나 위대하며 어이하여 우리 인민이 당을 그토록 신뢰하고 받든가를 알려면 로동당만세소리에 담겨있는 참뜻을 읽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월은 많이 흘렀지만 지금도 저는 《조선로동당 만세!》이 글발을 한자한자 감방벽에 새기던 때의 일을 잊을수 없습니다.

참기 어렵고 표현할수 없는 고통의련속인 옥중살이, 앞으로 이런 고초를 또 몇년을 당해야 할지 기약조차할수 없었던 그 시절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하였는 신념과 의지를 북돋아주는 정신적영양소였습니다.

그래서 감방벽에 위대한 우리 당을 칭송하는 글발을 새기고 항상 그 글발을 거울삼아 양심을 비추며 굳세게 투쟁해나갈 지향이 합쳐졌고 조직에서는 그 분공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시간에 교형리들의 눈을 피해가며 작은 쇠조각을 감춰가지고 들어와 동지들과 함께 감방벽에 《조선로동당 만세!》라는 글발을 새겨놓았던것입니다.

교형리들의 눈에 띄우면 얼마나 무서운 고통이 뒤따르게 되는가를 모르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며칠후 그 글발을 발견한 교형리들은 미친 승냥이처럼 날뛰면서 주도자를 색출한다, 글발을 지운다 하면서 복새통을 괴워냈고 그로 하여 우리는 뼈가 부스러지고 살점이 터져나가는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썩들이 지우면 우리는 또 그 자리에 보란듯이 다시 새겼고 쇠조각이 닳아 없어지면 손톱으로, 손톱마저 모지라지면 피로 새겼습니다.

놈들은 캄캄한 감방에서 아무리 로동당만세를 불렀어도 누가 들어나주는가, 전향을 하라, 그러면 감옥신세도 면할수 있고 여생을 잘 살수 있다고 끈질기게 회유도 하였지만 우리의 신념은 꺾을수 없었습니다.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이 절해고도와도 같은 남녘의 철창속에서 《조선로동당 만세!》라는 글발을 새기고 그 만세의 함성으로 적들을 전률케 하며 투쟁하여올수 있는 힘의 원천은 과연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로동당의 품속에서 사람답게 살아온 그 나날들이 그 어떤 재부나 목숨보다도 귀중했으며 로동당이 있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

이 억척불변의 기동으로 가슴속에 세워져있었기때문이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어떤 당에 입당할 때 그 당을 이끄는 령수를 먼저 보게 됩니다.

저 역시 우리 당에 입당할 때 해방전부터 민족의 태양으로 홀모해마지않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존안을 우러르며 수령님의 당에 입당청원서를 썼습니다.

정말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우리 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였고 행복의 창조자였습니다.

망국의 그 시절 할빈거리를 헤매이며 살길을 찾아 방황하던 저도 로동당의 품속에서 나라의 주인이 되어 새 생활창조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민주전국의 열기가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구던 그 시절 로동당의 정사로 우리 인민의 세기적숙망이 풀리는 경이적인 사변들은 얼마나 많이 일어났고 그 사변들과 더불어 천지를 뚫게 하는 만세소리는 또 얼마나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까.

사람들 누구나 분여지에 처음으로 이름석자를 새긴 표말을 박으며 눈물속에 만세를 불렀고 학교로 줄지어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도, 난생처음 선거표를 받아안고 인간의 참다운 권리를 행사하면서도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 만세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를 받으며 부강조국을 일떠세우는 무한한 감격과 희열로 충만된 열광의 환호성이었습니다.

로동당이 이끄는 우리 조국은 인민의 살기 좋은 락원오 우뚝 솟아오를것이며 오직 로동당의 품속에서만 값높은 인생도 빛날일수 있고 만복도 꽃피난다는것을 우리는 누가 깨우쳐주어서가 아니라 실지 생활체험을 통해 절감하였습니다.

조국해방전쟁의 나날은 위대한 우리 당에 대한 인민의 절대적인 믿음이 어떤것이며 그 신뢰심이 얼마나 전설같은 기적을 낳는가를 남김없이 보여준 년대기였습니다.

어느 전쟁사에 군인들이 생명의 마지막순간에 당중앙위원회에 보내달라며 피묻은 당증과 당비를 바치고 자기를 조선로동당원으로 불려달라는 마지막말을 남기고 적의 화점을 향해 목숨을 서슴없이 내던진 이야기가 전해진적이 있었습니까.

《조선로동당 만세!》 지금도 신천 박물관 방공호벽에 새겨져있는 글발, 인간의 두뇌에서 뿜어낸 미제와 계급적원수들앞에서 절단코 굴하지 않은 우리 인민의 정신력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이 글발이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김일성장군님의 탁월한 령도와 오직 당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조국수호정신을 발휘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의지앞에서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는 산산조각이 났고 7.27전승의 축포가 터져올랐습니다.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모두가 이렇듯 위대한 당의 당원들이었습니다.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이렇듯 위대한 당을 신념의 기치로 우러르며 투쟁하였습니다.

30대에 감옥에 들어가 70대에 피가서린 감방문을 나서기까지 36년, 그 나날중 26년을 저는 한점 빛도 없는 독감방생활을 강요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의 찬연한 빛발은 철혹같은 그 감방안에도 태양의 빛발처럼 비쳐들며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곤 하였습니다.

원수들은 분계선너머 북의 소식이 빨갱이들에게 흘러들어가게 해서 절대로 안된다며 우리를 먹방에 가두어놓고도 모자라 교도소에 15척당장까지 쌓아놓았지만 진리의 해살마냥 흘러드는 로동당의 위용찬 모습을 가

## 비 전 향 장 기 수 최 하 중

리울수 없었습니다.

또 한 분의 천출위인 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을 이끄시여 승리와 번영의 새 역사를 창조해가는 감동깊은 이야기들, 그 격동의 년대기를 두고 어느 시인이 노래한것처럼 그 시선 한번 강도에 비끼면 황량하던 폐허에도 온갖 꽃이 만발하고 거인의 그 손길 창공을 가리키면 전설속의 천리마 네굽을 안고나는 감동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위대한 당을 신념과 의리로 받들어가는 혁명가의 희열과 광만으로 마냥 가슴부풀 저희들이었습니다.

동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붉은기를 버리고 배신과 파멸의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질 때 붉은기를 더 높이 들고 평양선언으로 세기를 진감시키며 정의와 사회주의를 수호해가는 향도의 기치, 이런 위대한 당을 우러르며 투쟁할진대 어찌 로동당만세가 절로 터져나오지 않을수 있으며 우리모두가 승리자가 되어 조국의 품에 안기는 감격적인 사변이 일어나지 않을수 있었습니까.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이 자기의 창건을 선포한 때로부터 어언 70년, 그동안 준엄한 나날이나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이나 인민들이 심장으로 터친 로동당만세소리는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시대에 온 나라 강산에 더욱 우렁차게 울리고있습니다.

우리 인민모두가 당과 운명을 함께 하여오며 체험한 바이지만 수령복을 누려야 당복도 누릴수 있다는것은 력사의 철리입니다.

세계적으로 사회주의위업을 처음으로 개척한 이전 소련에서 당이 당을 창건한 수령의 이름과 함께 불리워진 적도 있었습니다.

쑬뻬트사회주의적사실주의시문학의 대표자의 한 사람인 마야콥스키는 레닌이라고 하면 우리는 당을 생각하고 당이라고 하면 우리는 레닌을 생각한다고 시에 담아 노래한바도 있습니다.

그러한 당이 령도의 대를 잊지 못하여 궁극에는 근 한세기동안 누리를 붉게 물들인 기발을 내리우지 않으면 안되는 비운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교훈을 놓고보아도 대를 이어 위대한 수령을 높이 모시여 세월이 무궁도록 당복을 누리는 우리 인민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인민입니다.

세상에 각이한 정당들은 많지만 우리 당처럼 당을 창건하고 령도 하여오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빛받치며 그 위용을 떨쳐가는 당은 없습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으로 정식화시키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며 우리 당이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대를 이어 확고히 계승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는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와 같은 불후의 교전적로작들도 발표하시며 우리 당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의 빛발이라 백전백승의 당, 강철의 당, 불패의 당, 어머니당으로 빛을 뿌려온 우리 당의 위용은 최상의 높이에서 힘있게 펼쳐지고있습니다.

위대한 당의 령도를 떠나 내 조국에서 일어나는 경이적인 사변들에 대해 어찌 생각할수 있었습니까.

우리의 등대이고 투쟁의 기치인 위대한 당의 향도가 빛발쳐 우리 조국에서는 1년을 10년, 20년 맞잡이로 주름잡으며 《마식령속도》에 이어 평양정신, 평양속도로 세기적인 전변을 창조하는 기적이 련일 일어나고있습니다.

지금 당창건 일흔돐을 맞는 조국의 거리와 마을, 일터마다는 사람들의 크나큰 기쁨과 환희로 설레이고있습니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가 백두산대국의 자랑스러운 청춘기념비, 청년강국의 상징으로 솟아올라 빛을 뿌리고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일떠서 위대한 당의 향도를 받는 선군조선의 무궁무진한 힘과 역센 기상을 남김없이 보여주어줍니다. 이 땅에서 모든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종합봉사선 《무지개》호가 대동강에 등실 떠서 사람들을 어서 오라 부르는 모습은 또 얼마나 황홀합니까.

보는것마다 눈이 부시고 인민들이 사회주의만복을 마음껏 누릴 래일에 대한 신심과 락관, 끝없는 환희를 안겨주는 당의 향도에 누구나 가슴벅차올라 그 품에 안기여 세월 끝까지 눈부신 리상 이루어 영광을 맞이하리라고 걱정을 터치고있습니다.

선군의 총대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조국의 존엄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고 빛내여주는 참다운 삶의 보호자가 우리 당입니다.

자식을 애지중지 품어주는 어머니의 정은 자식의 운명을 늘 지켜주고 보호해주는데서 돋보이는것입니다.

인민들에게 온갖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줄뿐아니라 그 어떤 침략자도 덤벼들지 못하게 멸적의 총대를 서리발같이 버려 인민의 운명을 믿음직하게 지켜주는 위대한 어머니, 나라의 존엄을 지키는 길에서는 추호의 양보도 있을수 없다는 불변의 원칙성으로 인공지구위성도 보란듯이 쏘올리고 핵퇴성도 터치고 병진로선의 선포로 제국주의메뚜리들을 전멸케 하는 우리 당의 담대한 배짱과 담력에 의해 우리 조국은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만년준엄의 초석을 굳건히 다져 놓았습니다.

오직 선군의 궤도를 따라 질주하며 인민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져주는 당의 은덕이 너무도 고마워 누구나 로동당만세를 부르고 또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당의 인민사랑은 또 얼마나 만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있습니까.

이번에 조국의 북변에 위치한 라선시가 짧은 기간에 큰물피해를 가지고 인민의 무풍도월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모된 모습을 보면서 저는 로동당의 정지로 비긴 인민사랑의 세계를 더욱 심장으로 절감하였습니다.

나라의 최고중대사인 국방사업과 관련한 전략적문제들이 토의되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라선시피해복구사업을 중요의 제로 토의하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인민들이 당창건 70돐을 한지에서 맞게 된다고 하시며 피해복구사업을 전군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내밀도록 하시였으니 위대한 아버지의 그 뜨거운 정에 세계에 라선땅이 울고 온 나라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였습니다.

그러시교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신듯 하늘길, 배길을 달려 조국의 최북단에까지 찾아가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하늘처럼 여기신 우리 인민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따뜻한 보살펴주는것은 조선로동당의 웅대한 본분이라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남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들을 모시듯 더 잘 받들어나가자고 절절히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 원수님께서 얼마나 인민을 사랑하시였으면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잘 받들어나가자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듭거듭 말씀하시는것이겠습니까.

이런 하늘같은 사랑의 품에 우리 인민이 안겨 살고있습니다.

세상에 나라는 많아도 자주로 존엄 높은 공화국과 같은 나라가 없고 나라마다 인민은 있어도 우리 인민들처럼

당 당의 따뜻한 보살핌속에 자그마한 구김살도 없이 행복만을 노래하며 사는 인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당이 있다! 시련의 광풍이 휘몰아치고 역경이 겹쌓여도 이 배심, 이 자부를 안고 당의 품에 운명의 피줄을 잇고 사는 인민은 준엄한 날이 왔다고 당의 품을 떠나 다른 길을 가지 않을것이며 로동당만세를 더 높이 부르며 영원히 당과 운명을 함께 해나갈것입니다.

그 만세소리를 저는 언제나 듣고 있습니다.

TV나 방송을 통해 모두가 보고 듣는것이지만 경애하는 원수님을 뵈오면 너도나도 달려가 그 품에 안기고 걱정의 눈물을 쏟는 모습에서, 차디찬 바다물속에까지 뛰어들며 령도자를 따라서는 그 불같은 모습에서 저는 인민의 심장에서 울리는 로동당만세소리를 들었습니다.

지난 8월 우리 조국을 수호해야 하는 결전의 시각이 닥쳐왔을 때 행복만을 알고자란 청소년들로부터 전화의 불길속을 헤쳐온 로병들에게 이르기까지 인민군대 입대, 복대를 탄원하고 당과 끝까지 운명을 함께 할 충정의 맹세를 담은 편지를 경애하는 원수님께 삼가 올리는 모습이 펼쳐져 세인을 놀래우고 격동시켰습니다.

그때도 저는 온 나라에 차넘치는 로동당만세를 들었으며 그 만세에 높뛰는 고귀한 진리를 다시금 새겨안았습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울린 충정의 편지를 몸소 받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런 위대한 인민이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였다고, 조선로동당 70년력사에 언제나 승리라는 두 글자만을 아로새겨올수 있는 것은 우리 인민이 우리 당을 하늘처럼 믿고 진심으로 받들어왔기때문이라고, 이런 훌륭한 인민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자랑이라고 말씀하시였다고 합니다.

당은 인민에게 하늘같은 사랑을 베풀고 인민은 당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바로 이것이 수령복, 당복, 인민복을 노래하는 우리 조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제도를 압살해보려고 어리석게 날뛰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그 무슨 《정부와 인민의 분리》를 떠들어대며 우리 인민을 당의 품에서 떼어내보려고 별의별 추태를 다 부리고있는 남조선의 극악한 대결광신자들이 위대한 당의 두리에 혼연일체의 성세를 쌓고 우리 인민이 목청껏 터치는 로동당만세소리를 얼마나 싫어하고 또 얼마나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온갖 모략 자료를 긁어모아 《인권》소동도 벌리고 인터넷을 통한 심리모략놀음에 열을 올리지만 우리 당에 대한 인민의 신뢰심을 절대로 허물수 없습니다.

창건 첫날부터 70성상 인민을 위한 참다운 정치를 펴온 조선로동당, 그 품에 나서자란 우리 천만군민은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오고 절해고도에 선다고 하여도 로동당만세만을 언제나 심장으로 부르며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갈것입니다.

그 절절한 심정을 담은 노래가사의 한 구절을 새겨보는것으로 저의 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

그 품에 자란 천만아들딸 한마음 우러르며 생을 주시고 빛내여주신 어머니를 따릅니다 사심없이 변함이 없이 그대만을 사랑할 마음 어머니 어머니 위대한 어머니 영원히 안기렵니다

당이며 당이며 어머니 당이며 영원히 받들렵니다



# 민족의 대경사, 10월의 환희

10월 10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을 맞은 온 나라는 끝없는 환희와 기쁨속에 설레이고있다.

이날에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마음이 달려오는 평양에서는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을 경축하는 성대한 열병식과 군중시위가 진행되게 되고 아름다운 대동강반에서는 경축의 축도가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게 될것이다.

평양에서는 지금 조선로동당이 인민들에게 마련해주는 크나큰 선물인 미래과학자거리와 과학기술전당이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고있다. 대동강에서는 얼마전부터 인민들이 사회주의문명을 마음껏 누릴 최상급의 종합봉사선 《무지개》호가 푸른 물결을 헤가르며 사랑의 배고동소리를 울려가고있다. 백두대지에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하며 일떠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의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고 이곳에서 청년건설자들이 부르는 대합창이 사회주의만세소리, 로동당만세소리로 높이 울려져 온 나라를 끝없는 격동에 휩싸이게 하였다.

강산에 넘치는 10월의 환희, 그것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의 행복한 삶을 꽃피워주는 위대한 어머니당에 대한 고마움의 격정이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이 땅우에 천하제일강국의 그날을 기어이 앞당겨오려는 천만군민의 노도와 같은 애국의 열의와 의지가 솟구쳐올린 기쁨의 파도이다.

지금으로부터 70년전 나라가 갓 해방되었던 그때 새 조국건설을 위한 인민들의 애국의 열의는 활화산처럼 끓어번지였다.

당시 조성된 정세와 시대의 요구, 인민들의 지향을 헤아리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새 조선이 나아갈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고 전체 인민을 애국위업수행에로 향도할 대중적당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

였다. 창건된 첫날부터 자주적대를 확고히 세우고 인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여온 조선로동당의 70년사는 사람들에게 령도자의 위대성이자 당의 위대성이란것을 다시금 가슴뜨겁게 절감케 하고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일찌기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하며 당이 사대주의를 하면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는다는 심오한 진리를 밝히시고 언제나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자주적대를 확고히 견지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공화국의 구체적인 현실과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로선과 정책을 독자적으로 세우시고 그 관철에로 군대와 인민을 이끌어주시였다.

중공업에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데 대한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기본로선도 전후의 폐허우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현명한 경제건설로선이다.

사회주의경제에서 중공업은 나라의 자위적국방력의 물질적담보인 국방공업의 기초로 되며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경제발전을 직접 추동하는 관건적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경공업과 농업을 떠나서는 당면한 인민생활을 안정시킬수 없는것은 물론 중공업발전 그자체도 보장할수 없는것이다.

이로부터 수령님께서서는 력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중공업의 우선적발전과 경공업과 농업의 동시적발전이라는 독창적인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제국주의세력의 침략과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다같이 강화하기 위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 그리고 남조선에서 미군을 몰아내고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체의 힘으로 조국을 평

화적으로 통일할데 대한 로선과 방침, 자주성에 기초하여 대외관계를 발전시킬데 대한 로선과 방침 등 모든것은 다 인민들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반영하고 철저히 고수하기 위함에서였다. 이렇듯 조선로동당이 자기의 자주적대를 확고히 견지하도록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지난 세기 90년대 여러 사회주의나라들이 붕괴되는 비극적사태가 벌어졌지만 조선로동당은 자기의 신념을 굳건히 지켜 사회주의한길을 변함없이 걸어올수 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걸으신 자주의 길을 굳건히 이어가신분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또다시 제국주의자들의 노예가 되느냐 아니면 자주적근위병이 되느냐 하는 갈림길에서 결연히 선군의 보검을 억척같이 잡으시고 선군장정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였다.

그 누가 내마음 몰라준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 가리라는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르고 부르시며 장군님 헤쳐가신 간고하고도 시련에 찬 선군장정의 길이 있어 공화국은 자기의 제도와 인민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고 자위의 핵보유국, 인공위성제작 및 발사국의 위용을 높이 떨칠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인민위천을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조선로동당이 참다운 인민의 보호자, 향도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선로동당이 인

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고 이끌어주는것을 당활동의 기본원칙으로 내세우도록 하시고 모든 사색과 실천의 첫자리에 언제나 인민을 먼저 놓으시였다.

평범한 인민들과 허물없이 무릎을 같이하시고 그들이 하는 소박한 이야기도 귀담아 들으시며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을 반영하여 로선과 정책을 세우신 어버이수령님이시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말기교가신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존엄 높고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여주시며 인민사랑의 길을 걷고 걸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헌신과 로고를 오늘도 사람들은 잊지 못하고있다.

인민들이 좋아하는가, 인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인민들의 기호에 맞는가, 인민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며 몸이 불편하신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현지지도의 길에 계신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그이의 마음속 첫자리에는 언제나 인민이 있었기에 조선

로동당은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것을 자기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변함없이 내세우고 철저히 관철하여올수 있었다.

오늘 조선로동당은 또 한분의 절세의 위인을 모시어 전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존엄높은 당으로 그 빛을 영원히 뿌려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걸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실 철의 의지를 온 세상에 천명하시고 조선로동당을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하고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하는 당으로 현명하게 이끌어주게 된다.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시고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으시는 인민의 어버이신 그이를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어 조선로동당은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당으로서의 자기의 성격과 사명을 더욱 뚜렷이 하면서 강성국가건설을

확신성있게 이끌어가고있다.

진정 세상에 당은 많아도 조선로동당처럼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고 인민을 위해 열사복무하며 그 길에서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곧바른 승리의 한길만을 걸어온 위력한 당, 위대한 당은 없다.

하기에 사람들은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어머니당으로 믿고 따르며 로동당의 령도를 한마음한뜻으로 받들고있는것이다.

오늘 전체 인민이 한사람같이 떨쳐나 조선속도를 창조하며 사회주의문명국을 향해 나아가는 장엄한 현실은 바로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인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애국의 한마음으로 받들어나가는 위대한 조선로동당이 있어 공화국은 필승불패이며 인민들이 세세년년 바라는 천하제일강국의 그날은 기어이 앞당겨져오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 어머니당의 본분을 다하도록

### 내 각 결 정

주제52(1963)년 12월 황해북도를 찾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현지에서 일군들의 협의회를 소집하시였다.

회의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아직 농민들의 생활이 편하지 못했고 특히 어린이들의 겨울옷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였다고 심려의 말씀을 하시였다.

머칠전 양지바른 산기슭에 자리잡은 중학교앞을 지나시면서 솜옷을 입지 못한채 길가에서 노는 학생들을 만나시였던 수령님이시였다.

그때 수령님께서서는 아이들의 연손을 감싸주시며 출지 않느냐고 물으시였다. 출지 않다고 합창을 하듯이 말씀을 리는 아이들의 등을 어루만지시며 그이께서는

### 2월이 전하는 이야기

어느해 2월 어느날 김정일장군님께서 일군 자신의 생신날을 겸 소하게 보내신 위대한

출지 않다니, 이렇게 출지를 입었는데 왜 출지 않겠는가 하시며 좀처럼 자리를 뜨지 못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때 일을 더듬으시며 인민들이 우리 당을 지지하는것은 당이 자기들의 어머니이기때문이라고, 이름그대로 어머니당인데 아이들이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한것을 보고도 본체만체 하고서야 어떻게 어머니당이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하시였다.

이렇게 되어 어버이수령님께서 황해북도를 다녀가신 후 전국의 모든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솜옷과 모자를 무상으로 공급할데 대한 공화국 내각결정이 채택되게 되었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인민들은 세심히 보살펴주어야 한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의 생활에 자그마한 불편도 있을세라 세심히 보살펴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는 그이의 말씀에 일군들은 걱정을 금치 못하였다.

### 한 여성에게 보내신 친필

주제101(2012)년 12월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함경남도 영광군에서 사는 한 일본인녀성이 올린 편지를 받으시였다.

나라에 죄를 진 허물 하여 어께가 처져 살던 아들이 조선로동당원 이 된 기쁨을 담아 경애하는 원수님께 감사의 편지를 삼가 올리였던것이다.

편지를 받아보신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당은 가슴속에 아픈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더 깊이 품어주고 내세우고있다 고, 자식의 아픔을 놓고

## 늘어가는 인민사랑의 창조물들

인민들에 대한 상업봉사를 위해 맑고 푸른 대동강에서는 새로 건조한 종합봉사선 《무지개》호가 영업을 시작하였고 미려과학자거리 한복판에는 갖가지 상품들이 가득 채워진 창광상점이 문을 열어 10월의 명절을 맞는 손님들을 기쁘게 하고있다.

창광상점은 인민 생활향상을 중요한 국책으로 내세우시고 인민사랑의 화폭을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헌신과 로고에 의해 건설된 봉사기지의 하나이다.

지난 9월 새로 건설되어 개점을 앞둔 창광상점을 찾으시고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되어있는 상점의 여러층들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및 봉사활동준비정형은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들이 새로 일떠선 창광상점이 정말 멋있다고 하면서 언제

면 문을 여는가고 하면서 궁금해한다는데 미흡한 점이 하나도 없게 운영준비를 더 잘하여 10월 10일을 계기로 개점하라고 하시였다.

그리고 새로 건조한 종합봉사선 《무지개》호를 계기로 개점하라고 하시였다. 그리고 새로 건조한 종합봉사선 《무지개》호를 돌아보시고는 인민을 위한 재부가 또 하나 늘어 나게 하여 대단히 기뻐 하시면서 당창건기념일전에 봉사를 하라고 지시하시였다.

지금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와 인민사랑의 손길아래 사회주의문명을 날로 더욱 꽃피워가는데 대한 한없는 긍지와 함께 보다 더 살기 좋고 행복해질 래일에 대한 확신과 기대에 넘쳐있다.

언제나 인민을 첫자리에 놓으시고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까운것 없이 다 돌려주시는 절세위인을 모시어 사회주의만복이 꽃필 래일을 희망과 탁관에 넘쳐 마중해가는 공화국의 인민들이다.

이런 행복한 인민을 더 잘살고 문명하게 해주시려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들이 새롭고 시원한 창광상점이 정

장, 미림승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 미래과학자거리, 창광상점, 종합봉사선 《무지개》호를 비롯하여 인민사랑의 창조물들을 련이어 일떠세워주게 된다.

그이께서 걸음걸음 손잡아 현명하게 이끄시는 로동당은 철두철미 인민을 위해 복무하고 일하는 당이다.

미흡한 점이 하나도 없게 운영준비를 더 잘하여 10월 10일을 계기로 개점하라. 당창건기념일전에 봉사를 시작하라.

10월의 하늘가에 메아리친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말씀도 인민을 떠나서 당도 있을수 없으며 조선로동당의 모든 활동의 최종목적이 인민의 복리증진에 있음을 다시금 일깨워주시는 사랑의 말씀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이민위천의 리념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의 꿈과 리상을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어 공화국에서는 앞으로도 인민들이 사회주의문명을 마음껏 누릴 행복의 창조물들이 계속 일떠서서 어서 오라 문을 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철진



# 조국통일을 당의 최대과업으로 내세우고

조선로동당이 걸어온 지난 70년은 온 겨레가 열망하는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제로 내세우고 나라의 통일위업을 끝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온 70년이다. 조선로동당이 통일운동의 진행에서 변함없이 견지한 조국통일노선은 나라와 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철저한 민족자주의 노선이며 통일조국의 부강발전과 전민족의 통일번영을 위한 참다운 애국애족의 노선이다.

조선로동당은 창건된 첫날부터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노선을 견지하고 나라의 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 민족사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렸다.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시며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해방직후 유엔의 간판밑에 남조선에서 《단선단정》이 조작되던 엄혹한 시기에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를 소집하시어 북과 남의 각당, 각과, 각계각층의 애국력량을 하나로 묶어세우셨다. 4월남북련석회의는 비록 사상과 리념이 다르고 정경과 신앙에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북과 남의 각이한 정치세력과 각계각층이 민족공동의 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얼마든지 단결할 수 있으며 북과 남이 화합하고 온 민족이 단결하면 조국의 자

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어머이수령님께서도 또한 1970년대초 정세발전의 요구에 맞게 폭넓은 북남협상방향을 내놓으시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제시하시어 나라의 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립장과 근본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의 초석을 마련해주셨다. 그리고 1980년대에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전체 조선민족의 지향과 요구, 우리 나라의 현실을 옹호하며 반영하고있는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조국통일방안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천명하시어 통일조국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설계도를 펼쳐주시었다. 제국주의련합세력과 내외분열주의자들의 무분별한 핵소동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앞에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었던 1990년대에는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작성발표하심으로써 민족적단합과 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주시었다.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의 기치따라 우리 겨레가 조국통일위업을 확신성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해주셨다.

특히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두차례의 력사적인 평양상봉을 마련하시어 조국통일3대원칙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겨레에게 안겨주심으로써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는 민족자주통일의 새시대를 펼쳐주시었다. 만나자 정이 통하고 각계각층의 우리 겨레가 열싸안고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합성을 높이 더친 6.15시대의 격동적인 화폭들은 조선로동당의 지중일관한 자주통일노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남김없는 과시였다.

민족의 넋을 귀중히 여기고 간직하는 모든 사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다 포섭하고 단합시키는것은 조선로동당의 확고한 립장이며 일관한 정책이다.

조선로동당은 조국애와 민족자주정신을 민족적단결의 기초로 삼고 사상과 리념, 정경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모든것을 조국통일위업에 복종시키는것을 민족대단결의 원칙으로 내세우고있으며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하려는 사람들은 과거불문의 원칙에서 용으로 대하며 통일애국의 길로 이끌어주고있다.

조국통일의 길에서 조선로동당이 변함없이 실시하고있는 광복정치에 의하여 한때 잘못된 길에 들었던 사람들도, 종교인도, 대자본가도 민족적단합과 통일애국의 길에 합류해나갈수 있었다.

오늘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우리 겨레의 투쟁을 진두에서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

가장 투철한 통일애국의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머이수령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연설에서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

든지 손잡고 나갈것이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도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이라는데 대하여 엄숙히 천명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로선도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 우리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정당한 애국애족의 노선이다.

지난 8월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도밑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교전직전까지 치달아올랐던 최극단의 정세상황속에서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가 취한 혁명적조치들,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화해와 신뢰의 길로 돌려세운 북남고위급급접촉정형이 분석평가되었다. 회의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는 운명적인 시각에 화를 복으로 전환시킨 이번 합의를 소중히 여기고 풍성한 결실로 가꾸어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의 대토로를 열어나가실 결단과 의지를 천명하시었다.

지난 4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창건 70돐에 즈음하여 발표하신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에서도 조국통일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책임진 우리 당앞에 나선 최대의 과업이라고, 우리는 세기를 이어오는 민족분열의 비극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뜻과 유훈을 관철하여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고 이 땅위에 강성부흥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워야 한다고 밝혀주시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북남고위급급접촉에서 이룩된 합의를 풍성한 결실로 가꾸어감으로써 조국해방 7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일으켜 자주통일의 대토로를 열어나가려는 조선로동당의 립장은 일관하며 확고하다.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는 받고있는 조선로동당은 온 겨레를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더욱 굳게 묶어세워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삼천리강토우에 기어이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성국가를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리 어 금



조선로동당의 영광스러운 70년 행로에는 선군의 기치높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켜 사생결단의 길을 헤쳐온 성스러운 자욱들이 뚜렷이 아로새겨져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다. 포악무도한 제국주의의 침략과 약탈, 전횡이 항시적으로 감행되는 오늘의 세계에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자면 자기 힘이 있어야 한다. 그 힘은 강한 군력이다. 창건이래 자주와 사회주의의 한길을 걸어온 공화국을 눈에 든 가지처럼 여기면서 적대와 압박, 압살정책에 매달려온 미국에 의해 조선반도에서는 전후에도 언제한번 평화가 깃들지 못하였다. 미국의 침략위협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경제와 문화건설은 물론이고 사회주의제도와 인민의 운명자체를 지켜낼수 없었다.

어머이수령님의 선군애국위업을 이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도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펼치시고 나라의 군력을 최대로 강화하시어 고난의 행군을 하는 그 어려운 속에서 민족의 자주와 존엄, 사회주의의 운명을 빛나게 수호하시였으며 공화국을 그 어떤 제국주의의 침략세력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자위의 핵보유국으로 우뚝 올려세워주시었다.

지금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또 한번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어 부강조국건설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도밑에 2013년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3월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노선이 채택됨으로써 민족의 운명개척을 위한 공화국의 투쟁에서 새로운 력사적전환기가 펼쳐지게 되었다.

적대세력들이 공화국의 《봉곡》을 떠벌리며 침략과 압살책동을 그 어느때보다 악랄하게 벌리는 속에서도 나라와 인민의 자주권과 존엄이 빛나게 수호되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같은 성과들이 수없이 이룩되게 된것은 이 병진로선이 얼마나 천만번 정당한 애국의 노선인가 하는것을 뚜렷이 증명해주고있다. 령강들의 각축전장으로 수난받던 조선반도의 지정학적숙명론은 이미 과거사로

되었다. 실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로선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투철한 민족자주의 리념과 선군혁명력사가 비껴있는 자위적핵무력을 천백배로 강화하여 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하려는 조선로동당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의 결정체이다.

지난 8월 미국과 남조선군부 호전관들의 엄중한 반공화국도발로 하여 나라의 정세가 전쟁접경으로 치달아올랐을 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에서 정세의 난향을 헤칠 단호한 결심들과 전략적방침들이 제시되어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 혁명의 전취물과 인민의 행복을 믿음직하게 지켜냈다. 벼랑끝까지 닿은 교전직전에서 다시 되찾은 평온은 결코 회담탁자에서 얻은것이 아니라 위대한 조선로동당이 키워온 자위적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무진막강한 군력과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무적의 천만대오가 있기 때문이었다.

제반 사실은 일찍부터 군사를 중시하고 군력강화에 큰 힘을 기울여온 조선로동당의 정치가 얼마나 현명했었이였는가를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세상이 열백번 변하고 역풍이 휘몰아쳐도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로선을 틀어쥐고 이 땅위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천하제일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정 종 문

## 70년이 해겨주는 진리

10월 10일로 조선로동당은 창건 일흔돐을 맞는다.

당의 력사가 70년이라면 작지 않은 세월이라고 할수 있다. 제국주의의 반사회주의의압살공세속에서 붉은기를 고수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경우에는 더우기 그러하다.

이전 동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 공산당, 로동당들이 사회주의붕괴와 함께 집권당의 지위를 잃은것은 세인이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20여년이 지난 오늘도 조선에서는 로동당의 붉은기가 펨력이고있다. 올해로 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더욱 강하고 생기발랄한 모습을 보이며 전국, 전군, 전민을 령도하여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의 날을 앞당겨오고있다.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조선로동당을 절세위인들께서 령도하여오시였기때문이다.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의 력사이다.

절세위인들께서는 민족자주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시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을 언제나 끝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시였다. 절세위인들께서 밝혀주신 조선로동당의 노선은 공화국이

승리와 번영의 길만을 걷게 한 백승의 기치였다.

조선로동당은 모든 로선과 정책의 기초에 인민을 놓고있다.

인류력사에는 여러 계급과 계층의 리익을 대표하는 각양각색의 당들이 있었지만 어느 당도 인민들로부터 어머니당이라는 고귀한 칭호로 불리워본 적은 없거다.

어머니당, 이는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 심장으로 조선로동당을 칭송하여 터치는 말이다.

지금도 온 나라 인민의 가슴마다에는 조선로동당 제4차세포비서대회에서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이 뜨겁게 새겨져있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에는 전당에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신이 짙자넘치게 하려는 당의 의지가 담겨져있습니다.》

조선로동당의 정치는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이고 다심하고 살뜰한 어머니손길로 인민이 바라는 세상, 인민의 꿈과 리상이 실현된 사회주의무용도원을 일떠세워주는 정치이다.

하기에 창건된 때로부터 7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변함없이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당, 인민과 혼연일체를 이룬 당으로 승승장구하는 조선로동당이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

다!》는 구호는 오늘도 공화국군대와 인민들속에서 신념의 구호로 울려 퍼지고있다.

얼마전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성대한 준공식을 진행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도 위대한 당을 따르는 선군시대 청년들이 일떠세운 자랑스런 창조물이다.

하기에 준공식에 몸소 참석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도 당중앙은 피타는 노력과 희생적인 투쟁으로 우리 당의 결심은 곧 현실이고 실천이라는것을 증명하고 선군시대 청년전위의 기개를 온 세상에 떨친 우리의 미더운 청년들을 높이 평가한다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오늘 열병식과 군중시위가 진행되는 김일성광장에서 울려 퍼지게 될 공화국 군대와 인민의 우렁찬 만세소리는 조선로동당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흠모와 신뢰의 분출이다.

조선로동당과 인민의 혼연일체는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변함없는 선군조선의 숭엄한 화폭이다.

절세위인의 탁월한 령도가 있고 군대와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당, 인민과 혼연일체를 이룬 당으로 승승장구하는 조선로동당이다.

본사기자 김준경



#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 개막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가 평양에서 성대히 개막되었다.

《위대한 어머니당에 드리는 축원의 꽃바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조선로동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을 주제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우러러 모시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경모심을 뚜렷이 과시하는 대정치축전이다.

전시회장인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에는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라는 글발이 세워져있으며 공화국기와 전시회기발들이 게양되어있다.

불멸의 꽃들로 황홀경을 이룬 전시회장에는

환하게 웃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모셔져있다.

무력기관, 성, 중앙기관들을 비롯한 수많은 단위들과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부들, 친선 및 련대성단체들의 지성이 어린 2만 1 000여상의 태양의 꽃들이 전시회장에 전시되었다.

개막식이 8일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에서 진행되었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개막식은 시작되었다.

조선 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 위원장이 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전체 군대와 인민이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강성국가건설의 전구마다에서 눈부신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며 10월의 대축전을 혁명적대경사로 맞이하고있는 속에서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를 진행하게 된다

하면서 이번 전시회가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천만군민의 영웅적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며 진보적인강화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전시회개막을 선언하였다.

개막식은 《불멸의 꽃축전》주악으로 끝났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위인칭송, 태양칭송의 꽃들로 황홀경을 이룬 전시회장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 천만자식모두를 안아주는 사랑의 품

나는 지금껏 라선땅에 태를 묻고 살아왔지만 오늘처럼 기쁘고 감격에 겨워보기는 처음이다.

지금으로부터 두달전 백년이래 처음으로 되는 큰물피해로 살림집은 물론 가장집물을 잃고 한지에 나앉은 그 당시 나는 물론 온 마을사람들이 속이 새까매 울고 울었다.

엄청난 큰물피해 복구는 어떻게 하며 다가오는 엄동설한의 추위속에서 어떻게 겨울을 나겠는지...

하나 그것은 공연한 걱정이였다. 커다란 재해로 몸부림치는 우리 라선시에 당의 따사로운 손길 이 미친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밀에 라선시피해복구대책을 위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

회 확대회의가 열리고 조선로동당창건기념일 전으로 완전히 끝낼테 대한 최고사령관 명령이 하달되었다. 이런 국가적조치를 취해주시고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은듯 머나먼 하늘길, 령길, 배길을 달려 뿔뿔이 날리는 살림집건설현장을 몸소 찾으시고 온갖 은정어린 조치들을 다 취해주신 원수님이다.

어디 그뿐인가. 라선시피해복구전투가 승리적으로 결속되었을 때는 주신 사랑 다 못 주신듯 TV와 의복류, 화식기재, 식료품을 비롯한 생활필수품을 한가득 안겨주시고 얼마전에는 또다시 머나먼 우리 북변땅을 찾으시어 리 북변군대가 새집들이가지 도와주도록 해주신 우리 원수님이다. 사

랑이면 이보다 더 큰 어머니사랑, 정이면 이보다 더 뜨거운 아버지정이 어디에 있겠는가.

정녕 우리 원수님은 이땅의 천만자식모두를 안아주고 그늘 한점 없게 보살펴주시는 삶의 태양이시며 우리모두의 운명의 전부이시다.

인민을 제일로 위하는 사랑의 정치가 펼쳐지는 우리 나라에서는 자연재해는 있어도 불행에 우는 재해민은 없다.

사랑에는 보답이 따른다고 했다. 내 비록 일흔이 가까워오지만 우리 원수님의 대해같은 사랑에 천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고마운이 제도를 목숨바쳐 지키기 위해 여생을 강그리 바치겠다.

라선시 백학동 리은복

## 인민을 아껴주는 우리 당이 고마워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둘째 맞는 온 나라 인민이 다 그러하지만 우리 량강도 백암군내 주민들도 어머니당의 창건기념일을 크나큰 기쁨과 환희속에 맞이하고있다.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이라면 두메산골에 살든, 룽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서 살든 언제나 따듯이 품어안아주고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이 창건일흔둘째 맞이하였으니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당에서선 얼마전에도 우리 백암군의 침수지역 인민들을 위해 백수침동의 크고 번듯한 살림집들을 지어 무상으로 안겨주는 배려를 돌려주

었다. 부역세간과 가구비품들, 빨감과 비자루, 삼태기, 눈가래 등 가지가지의 생활용품들은 우리 당의 인민사랑이 뜨겁게 스며여있다.

친어머니의 사랑인들 이보다 더 살뜰하고 극진하겠는가. 원래 수력발전소가 건설되면 침수지역이 생기고 그래서 많은 세대들이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는것이 행성의 보편적인 일로 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당에서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침수지역인민들을 위해 수많은 자재와 인원들을 동원하여 경치좋은 산기슭에 아담한 문화주택들을 최

상의 수준에서 건설하여 인민들이 새집들이를 하게 해주었다.

이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까지 준공되어 전기문제도 풀리고 우리 백암지역은 더욱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되게 되었다.

정말 내 사는 내 나라가 제일이고 인민을 제일로 내세워주고 아껴주는 우리 당이 제일이다.

고마운 그 언덕을 언제나 나무들을 사회주의건설장들에 보내주어 강성국가 건설하는데 조금이라도 이바지하겠다.

량강도 영평림산사업소 노동자 김철국

#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통일방안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전쟁점점에까지 치달았던 조선반도의 정세를 완화와 관계개선으로 극적으로 돌려세운 북남고위급긴급접촉에서의 합의가 성실히 리행되어 민족적화해와 자주통일의 전환적국면이 열리기를 바라고있다.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개선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자면 량방제방식의 통일을 지향해나가야 한다.

공화국정부는 이미 35년전에 량방제방식의 새롭고 획기적인 통일방안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내놓았다.

이 량방제통일방안은 조국통일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이면서 현실적인 통일방안으로 되고있다.

량방제통일방안은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 통일문제의 성격과 구체적인 현실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이 방안은 한 나라안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할수 있다는 독창적인 사상과 현실적가능성에 기초하고있다.

북과 남에 반세기 넘는 기간 굳어져온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해오고있으며 누구도 이것을 양보하려 하지

않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북과 남이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대시하면서 그것을 상대방에 강요하려 한다면 통일은 고사하고 불가피하게 충돌을 낳게 되고 돌이킬수 없는 민족적참화까지 빚어질수 있다.

그러므로 북과 남의 두 지역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통일할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민족적공통성과 단일성이다.

북과 남은 단군을 원시조로 하여 5천년이상 한피줄을 이으며 량강도에서 살아온 단일민족으로서 민족적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북과 남 사이에 반세기가 넘는 동안 두 제도가 존재하여온 이질성이 있지만 그것은 5천년이상 형성되고 공고화된 민족적공통성에 비할수 없다.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개 제도의 차이는 결코 우리 민족이 서로 갈라져 살아야 할 조건으로 될수 없으며 통일을 이룩하는데서 극복하지 못할 장애로 될수 없다. 역사적으로 면면히 이어온 민족적공통성을 공통분모로 한다면 두 제도는 얼마든지 하나의 민족, 하나의 통일국가안에서 공존, 공영할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량방제방식으로 통일을 실현하는 경우 지역정부들이 같은 권한과 의무

를 지니고 각각 독자적인 정치를 실시하게 되는것만큼 사상과 제도의 차이는 조금도 문제될것이 없다.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그대로 존재하는 조건에서 누가 누구를 먹거나 먹히우지 않는 공존의 원칙에서 민족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가장 빨리 실현할수 있게 하는 최선의 방도로 된다는 여기에 량방제통일방안의 공명정대성과 합리성, 현실성이 있는것이다.

량방제통일방안은 다음으로 북과 남의 리해관계를 가장 공정하게 반영하고있는 통일방안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의를 최우선적인 지위에 놓고 어느 일방도 자기의 리익이 침해당함이 없이 공정하게 해결할것을 요구하고있다. 통일방도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면 현실적인것으로 되자면 계급리해관계를 달리는 북과 남의 모든 계급, 계층들과 각당, 각파가 면면히 이어온 민족적공통성을 공통분모로 한다면 두 제도는 얼마든지 하나의 민족, 하나의 통일국가안에서 공존, 공영할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량방제방식으로 통일을 실현하는 경우 지역정부들이 같은 권한과 의무

하고있으며 량방국가의 기능도 온 민족의 리익을 다같이 존중하고 옹호하는것을 기본으로 하여 규정하고있다. 그리고 량방정부와 지역정부의 권한과 임무도 공정성의 원칙에서 밝히고있다. 따라서 량방국가안에서 북과 남의 어느 계급이나 계층, 당파의 리익도 침해당하거나 손상되지 않게 된다.

량방제통일방안이야말로 사상과 정견, 신앙이 어떠하건, 그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관계없이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념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같이 공감하고 받아들일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이면서 현실적인 통일방안으로 되는것이다.

량방제통일방안은 또한 주변 나라들의 리해관계와 세계평화에 호인민들의 념원에도 부합되는 통일방안이다.

평화에호적인 량방국가는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의 전통을 지키고 어느 나라에 대해서도 침략위협을 주지 않으며 어느 나라의 침략행위에도 리용되지 않을것이다.

통일조선이 중립적인 나라로 된다는것은 어떠한 정치군사적동맹이나 불려에도 가담하지 않고 어떠한 특정한 나라의 편에서 다른 나라를 반대하지 않으며 공명정대한 립

장에 서서 세계의 크고작은 나라, 멀고 가까운 나라 할것없이 모든 나라들과 선린우호관계를 적극 도모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량방제통일이 실현되면 조선반도에서 북침과 《남침》에 대한 우려가 없어지는것은 물론 항구적으로 평화를 보장할수 있는 확고한 전제개 제도로 마련되게 될것이다.

또한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중요한 근원을 제거하게 됨으로써 아시아와 세계평화에 크게 이바지하게 된다.

보논바와 같이 량방제통일방안은 민족적념원과 리익으로 보나 세계인민들의 리해관계로 보나 아시아와 세계평화의 결지에서 보나 더없이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이면서 현실적인 통일방안이다.

하기에 공화국이 내놓은 량방제통일방안은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와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세인의 공감과 지지를 받아왔다.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조선반도의 실정에서 나라의 통일을 민족의 지향과 리익에 맞게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하자면 량방제방식의 통일에 더는 길이 없다.

북과 남은 2000년 평양상봉에서 채택 발표한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에서 북측의 낮은 단계의 량방제안과 남측의 량방제안에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나갈데 대하여 내외에 엄숙히 선포하였다. 공동선언을 리행하여 조선반도에 펼쳐졌던 환희와 격동의 6.15시대는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존중하고 민족이 뜻과 힘을 합쳐나갈 때 못해별일이 없으며 자주통일의 그날을 앞당겨올수 있다는것을 실증하였다.

지금 북과 남은 세기를 이어오는 불신과 대결을 끝장내고 화해와 관계개선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끝없는 대결로 민족의 분열을 더욱 지속시키고 전쟁위험속에 사는가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 서있다.

이 책임적이므로 중요한 시기에 남조선당국은 시대착오적이며 범죄적인 동족대결정책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진정한 통일의 마음으로 동족의 손을 잡아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모처럼 마련된 북남합의를 포성한 결실로 바꾸어가며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량방제방식의 통일을 기여이 실현하고야말것이다.

김명성



장  
서

# 당을 따라 신념의 한길 가리

— 조선로동당 창건 일흔뫼에 즈음하여 —

비전향장기수일동

푸르른 하늘에 당기는 나뭇기  
이 땅에 환희의 꽃바다 설레이는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뫼  
당이며, 뜻깊은 이 아침  
우리는 그대의 붉은 기폭을  
더 높이 우리르노라

인생의 값높은 삶  
그대 품에서만 빛날수 있기에  
스스로 운명을 맡기고 받드는 당  
당이 있어 행복하고 긍지높은  
우리의 한생이었거니

쉽지 않았어라  
결코 순탄치는 않았어라  
갈래도 많고 선택도 많은 인생행로에서  
한번 먹은 맘 버리지 않는다는것은  
신념을 지켜 한생을 바친다는것은

강쇠도 녹이 쓸어  
모래처럼 부스러진다는 수십년세월  
황금의 시절을 피호르는 철창속에 묻고  
죽음보다 더한 고초 겪으면서도  
어이하어 우리 당원의 지조 지켜왔던가

신념, 당원의 신념이 무엇이기에  
《전향》 그 한마디면  
죽음도 면하고 여생도 건질수 있었건만  
한번 택한 신념의 길  
그 한길만을 우리 꾀꿉이 걸어왔던가

조선로동당원!  
그것은 나라없던 수난의 세월  
사람값에도 들지 못하던 우리를 안아  
인간중의 참인간으로 내세워준 사랑  
애라게 간절히 지니고싶었던 존엄과 권리

해방후 당원증을 수여받고  
그처럼 많은 눈물 흘렸다는  
리동지에게 물어보라  
분여받은 기름진 땅을 배고 누워  
온밤 잠 못 들었다는 최동지에게 물어보라

당은 천덕꾸러기로 버림받던 몸  
따뜻이 안아 새세상의 주인으로  
당당히 내세워준 은인의 품  
처음으로 세상사는 맛을 눈물로 알게 해준  
한없이 뜨거운 사랑의 품

신념은 받아안은 사랑이 고타워  
그것이 소중한 지키고싶은 마음  
그 사랑 잃으면 죽은 목숨이나 같기에  
인간답게 살고싶어 의리를 다하는 마음

당을 잃으면 당원의 이름 저버리면  
또다시 안길 품 없고  
노예의 이름으로 다시 불리우기에  
조선로동당원 그 소중한 이름을 지켜  
우리는 서슴없이 비전향을 선택했거늘

생각도 깊어져라  
오늘은 우리 저저마다  
꽃중의 꽃을 골라 꽃다발 엮어가고있지만  
저 남녘의 철창속에선  
죽음을 각오하고 경축하던 10월이 아닌가

교형리들 눈을 피해 꺾어온  
자그마한 들꽃 한송이  
있이 지면 당원의 마음도 시드는것 같아  
10월에 드릴 그 한송이 꽃에  
한모금 물마저 아낌없이 부은 당원들

피가 혼하고 물이 귀하다는  
몸서리치는 그 철창속에서 피워  
당에 드린 그 붉은 들꽃은  
배신의 검정물 들지 않은 우리의 넋

꺼지지 않는 우리 신념의 불꽃이었나니  
— 래일은 10월 10일  
동지들, 당에 인사를 드리자

— 당원동지들  
당앞에 부끄럼없이 살자  
죽는대도 당원의 신념 버리지 말자

두터운 감방벽을 뚫고  
온 감옥에 퍼져간 통방소리  
터지고 찢긴 피절은 수의 여미고  
으깨어진 옥신 서로 부축하며  
우리는 우리렀다 그리운 평양하늘을

감방속에서 호른 수십년세월  
그 세월은 피에 주린 악형의 야성만이  
참기 힘든 신음만이 호른 세월이었으랴  
당원의 신념 불길로 태워준  
그 통방소리가 끝없이 울린 세월이었다

나를 부르고 우리모두를 부른 소리  
당원답게 살라 힘을 준 소리  
뜻도 마음도 함께 나누던 통방소리는  
원쭉들 없애지도 없앨수도 없었던  
우리 신념의 언어, 의지의 노래

하기에 이런 10월이면  
더더욱 횡포해지던 악형과 전향태로  
피를 쏟으며 쓰러진 당원들은 얼마  
새벽에 끌려나간 고문장에서  
영영 돌아오지 못한 당원도 있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쇠덩이였으랴  
우리도 인간이었기에  
한식술 다같이 함께 모여살자는  
어머니, 형님과 동생들의 몸부림앞에서  
피나게 입술을 짓씹어야 할 때도 있었  
어라

가족명부에서 삭제되었느냐  
전향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겠느냐  
두장의 종이를 눈앞에 내흔들던  
그 회유앞에 서보기를 몇십, 몇백번...

가식없는 진실로 고백하노니  
내려치는 각목에 뼈가 동강나고  
철사에 살점이 몽청 떨어져 휘뿌러지는  
그 모진 악형은 이겨낼수 있었다  
허나 혈육이나 신념이나  
그 운명의 선택만은 정말 참기 힘들었어라

사람들이여  
줄지에 피가 마르던 그 순간순간을  
어떻게 이겨냈고 단호히 물리쳤는지  
구태여 우리모두의 마음  
여기에 다 펼쳐놓으려 하지 않는다  
다만 그때의 굴밭 여기 적어놓을뿐

—나의 당증번호 451010  
—나는 당의 아들이다

그 신념으로 고문장에서도  
우린 교형리들앞에 무릎꿇지 않았고  
밤도 낮도 가릴수 없는 산무덤에서도  
벽에 한줄 두줄 글을 그어가며  
자신의 당생활을 두고  
량심의 총화를 진행해왔거니

30년, 40년 지나긴 옥중생활에  
남아준 어머니마저 알아볼길 없이  
육체는 쇠잔하고 병들었어도  
당원이란 그 본래  
우리의 신념은 추호도 변색 없었노라

신념 그것을 지켰기에

우리는 철창속의 수인이였어도  
원쭉들과 싸워이긴 승리자였고  
신념 그것을 버리지 않았기에  
우리는 당의 품에 땀땀이 안겼노라

오늘도 잊을수 없는 날  
우리모두 공화국의 품에 안겨  
새 당증을 수여받던 날이여  
그처럼 지니고싶었던 붉은 당증을  
가슴에 부여안고 오열 터뜨린 날이여

얼마나 그 당증이 그리웠으면  
철창속에서도 빼없이  
당증을 품었던 가슴 쓸고 또 쓸어보았  
으랴

피는 쏟을지언정 흘리지 않았던 눈물  
새 당증을 받으며 쏟고 또 쏟았으랴  
그날은 비전향장기수 우리가  
당의 품속에 다시 태어난 뜻깊은 날  
수십년 그리고 안기고싶던 어머니품에  
백발의 아들들이 안긴 행복의 날

피멍든 가슴에 영웅메달 달아준 사랑도  
어머니당의 사랑  
조국통일상수상자로 내세워주며  
온갖 반복 다 꽃피워준 품도  
아, 어머니당의 품

돌이켜보면 당의 사랑은  
수령님품에서 당원이 된 그날부터  
우릴 보살펴준 인생의 자양이였고  
죽어도 못 버릴 신념을 불태워준  
힘의 원천 의지의 힘이였나니

모진 악형에 시체처럼 쓰러졌다가도  
그 사랑 있어 원쭉들앞에  
불사신처럼 강인히 일어설수 있었다  
뼈마져 얼어드는 혹한속에서도  
그 사랑으로 높편 심장은 얼쿨수 없었다

우리 당은 비전향장기수들을  
잊은적 없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을 데려와야 한  
다고

그리도 절절히 말씀하신 장군님  
죽어 상여에 실려서만 나온다면  
그 지옥에서 우릴 살려준것도 당의 사랑

하기에 우리는 소리높이 말한다  
당은 수령님과 장군님  
죽음도 이기게 한 사랑  
철쇄로도 묶지 못한 우리 신념  
그것은 수령님께서 주신것이라고  
장군님께서 주신것이라고

수령님 따라 장군님 따라  
당을 믿고 받들어 살아온 우리  
원수님 따라 끝까지 여생을 바쳐갈 마음  
머리엔 흰서리 불리어도  
우리 마음엔 흰오리 내리지 않았거니

우리들의 집집에 모셔져있는  
로병대회기념사진  
원수님 모시고 찍은 그 사진  
매없이 바라보며  
가슴깊이 생각하는것 무엇이던가

자신의 가까이  
영광의 대회장에 불러주신 그 뜻  
어이 사랑과 은정으로만 헤아리랴  
원쭉과 싸우던 그날의 기개  
그날의 신념으로 한생을 살라는  
그이의 믿음 당부가 어려웠지 않던가

그래서 우리

매일같이 자신에게 스스로 묻는 말  
—옥중투쟁의 나날처럼 살고있는가  
—신념의 탕개가 풀리지 않는가

지금도 잊을수 없어라  
항일의 전적지 마두산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  
그 구호앞에 오래도록 서계시며  
원수님 하시던 그 말씀

—혁명은 곧 신념입니다  
신념을 버리면 혁명을 할수 없습니다  
혁명적신념을 굳건히 간직한 사람만이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수 있으며  
조국과 인민앞에 땀땀할수 있습니다

신념을 굳건히 간직한 사람만이  
혁명의 길 끝까지 갈수 있다고 하신 말씀  
이 나라 천만군민의 가슴에  
비전향장기수 우리모두의 가슴에  
그이 새겨주신 삶의 표대!

백두의 칼바람을 맞보아야  
백두산의 진짜맛을 알수 있다고 하시며  
원수님 오르신 성산 백두산  
그이 따라 우리 마음도  
오르지 않았더냐 신념의 산악 백두산으로

백두의 칼바람은 혁명가들에게는  
혁명적신념을 더 굳게 버려준다!

불어치는 눈보라를 헤가르며  
백두산정에 찌렁찌렁 올려피지던  
원수님의 그 음성  
신념의 고향으로 백두산을 새겨주신  
그이는 신념의 화신 신념의 제일장자

오, 백두산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  
신념의 드세찬 폭풍으로  
불어치는 광풍 쳐갈기시고  
이 땅에 천하제일강국을 세우시는  
절세의 위인 김정은원수님

우리는 보았어라  
그이의 담력 그이의 의지앞에  
원쭉들 추풍락엽처럼 떨고있는것을  
그이의 기상 그이의 의지로  
이 땅에 우후죽순으로 일떠서는  
거대한 시대의 창조물들을

위대한것에 마음끌린다 했더라  
강한것에 운명을 맡긴다 했더라  
신념이 끝까지 믿고 받드는것이라면  
길이 믿어 따르고싶은 원수님  
신념이 송죽같은 절개라면  
세월의 끝까지 변함없이  
충정다해 받들고싶은 원수님

이제 다시 우리 운명이  
퍼터지는 고문장 단두대에 놓인대도  
결코 다른 삶의 길 택하지 않으리  
목숨을 바쳐야 한다면  
그 길도 기꺼이 웃으며 가리랴

원수님 따라당을 따라  
노도쳐가는 총정의 대오  
10월의 경축광장에서  
우리는 본다  
천하제일강국으로 일떠서는 조국  
부강번영할 통일된 삼천리

그 신념의 대오 총정의 대오에  
우리 몸도 따라세우며  
당을 받들어 세월의 한끝까지 가려니  
당이며, 받아다오 그대의 아들들  
로당원들의 신념의 이 맹세 받아다오



련방제방식의 통일밖에 없다

지금 온 겨레가 일일천추 갈망하는 것은 조국통일이다. 외세에 의하여 오래동안 강요당하고있는 민족분렬의 이 비극을 끝장내지 않고서는 조선민족의 피가 뛰는 그 누구도 자기의 시대적책임과 의무를 다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남조선당국은 북남고위급 긴급접촉회의로 모처럼 조성된 완화와 관계개선의 흐름에 역행하여 외세와 함께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소동에 계속 매달리고 있다.

그 무슨 《통일대박》이니, 《통일준비》니, 《통일의교》니 하면서 체제대결소동을 벌리고있는 것도 그 하나이다. 이것은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에 찬물을 끼얹고 북남이 마련한 소중한 합의리행에도 난관을 조성하는 범죄적행위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보수당국은 저들주도하의 《흡수통일》만이 《대박》이며 이러한 《통일》을 《준비》하고 저들의 범죄적인 《흡수통일》에 대한 외세

의 지지를 이끌어내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은 어차피 북과 남사이의 체제대결을 불러올 것이며 그 종착점은 동족사이의 불미스러운 충돌과 전쟁뿐이다.

이 땅에 70년간이나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해온 조건에서 누구도 자기의것을 양보하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충돌로 이어지고 그 후과는 자못 파국적이다.

현실이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보수당국이 《흡수통일》야망실현에 집요하게 매여달리는 것은 그들에게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저들의 정치적야욕만을 실현해보려는 불순한 기도만이 가득차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족내부에 《흡수통일》을 꿈꾸는 어리석은자들이 있는 한 북남사이에는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질수 없으며 북남관계발전도 기대할 수가 없다.

자기를 해치려드는 자들과 마주앉아 진정을 터놓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더우기 속에 탄압을 품은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사이 좋게 지낼수가 있겠는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자면 상대방을 해치려는 체제대결의 양심

을 버려야 하며 공존, 공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서로 먹고 먹히우지 않고 공존, 공리를 도모하면서 평화적으로 통일로 나아가는 길은 련방제방식의 통일밖에 없다.

북과 남의 최고수뇌분들이 합의한 련사적인 6.15공동선언에도 북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과 남의 련합제안이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이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시켜나갈데 대해서 밝히고있다.

북과 남이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통일을 이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겨레가 수수천년 이어온 민족성에 기초하여 제도상 차이를 뒤로 미루고 가장 빠른 기간안에 평화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방도이다.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감으로써 자주적이며 중립적인 련방제통일국가를 하루빨리 이 땅위에 현실로 이루어놓을 것이다.

본사기자 최명제

범죄적인 군사적대결소동은 용납될수 없다

얼마전 남조선의 군부는 새로운 북침전쟁계획인 《작전계획 5015》를 《국회》에서 비공개로 보고하였다.

《작전계획 5015》는 《작전계획 5026》으로부터 《작전계획 5030》까지의 5개의 《작전계획》과 《국지도발대비계획》까지 총 6개의 《작전계획》의 《장점》을 뽑아 새롭게 완성한 종합판이라고 한다.

엄중시하지 않을수 없는 것은 이 계획이 공화국에 대한 《선제타격》과 유사시 《북의 수뇌부제거》를 위한 특수부대투입, 일명 《참수작전》을 기본으로 하고있다는 것이다.

남조선의 신임합동참모본부 의장이라는 자는 《국회》에서 열린 《후보청문회》에서 이 《작전계획》을 2017년부터 미국과의 합동전쟁연습인 《키 리졸브》에 적용하겠다고 로골적으로 떠들었다. 그러면서 《북의 도발시 원점타격》, 《빠져서 후회하도록

할 것이다》며 호전적망발을 늘어놓았다.

이뿐이 아니다.

남조선의 군부호전세력은 2017년까지 800km탄도미사일을 개발완료하여 실전배치하겠다고 하면서 《북전역을 타격할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개발, 완료, 배치하는 것이 목표》라고 선제공격기도를 숨기지 않았다.

사실들은 남조선의 군부호전세력이 미국의 배후조종밑에 겨레의 평화지향과 조선반도의 완화흐름에 역행하여 정세를 긴장격화하고 전쟁의 길로 끌고가려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내외호전세력이 지난 시기 작성하고 적용하여온 전쟁각본들과 전쟁연습들이 모두 북침을 노린 것이라는 자라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처럼 《선제타격》을 공공연히 쏘아박은 때는 없다. 이것은 그들의 북침전쟁기도가 얼마나 무분별하고

위험천만한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잘 말해준다. 더우기 《작전계획》의 내용에 《수뇌부제거》를 위한 특수부대투입내용을 반영한것은 공화국 군대와 인민의 분노를 치솟게 하는 엄중한 행위가 아닐수 없다.

지금 남조선당국이 그 누구의 《10월도발》이니, 《위협》이니 뉘니 하지만 객관적인 사실들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정세를 전쟁접경으로 끌고가지 못해 안달아하는 진짜도발자, 전쟁세력인 과연 누구인가를 여실히 실증해주고있다.

불을 즐기는 자는 불에 타죽기 마련이다.

남조선의 군부호전세력은 저들의 무모한 망동이 불러올 돌이킬수 없는 후과에 대하여 심사숙고해보고 조선반도의 완화에 찬물을 끼얹는 범죄적인 군사적대결망동을 중지하여야 할 것이다.

김연희



생존권보장을 위해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남조선정국이 소란스럽기 그지없다.

다음해 4월에 예정된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와 여야사이에서 《국민공천제도입》과 《선거구획정기준》문제 등을 놓고 피터지는 싸움을 벌리고있기때문이다.

특히 보수집권세력내부에서 정치적야욕을 실현하기 위해 계파간 벌리는 싸움질은 사람들의 눈살만 찌프리게 하고 있다.

서청원을 비롯한 친박근혜계와 《새누리당》대표 김무성을 중심으로 하는 비박근혜계로 나뉘어 벌리는 싸움질의 기본문제는 《국민공천제도입》문제이다.

지금 비박계는 《전략공천은 없다》며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요구하는 반면 친박계는 그것이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패배를 가져온다고 하면서 《전략공천》을 주장하고있다.

비박계와 친박계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되어 싸우고 있는 여기에는 서로의 권력이

심이 깃들어있다.

《새누리당》대표 김무성이 《완전국민경선제》를 요구하는 것은 그가 지난 시기 겪은 인생행로와 관련이 있다.

리명박집권초기인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때 당시 친박계였던 김무성은 당내 친리명박계의 정치적보복으로

《완전국민경선제》를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대표 김무성이 《완전국민경선제》를 요구하는 것은 그가 지난 시기 겪은 인생행로와 관련이 있다.

리명박집권초기인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때 당시 친박계였던 김무성은 당내 친리명박계의 정치적보복으로

《완전국민경선제》를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대표 김무성이 《완전국민경선제》를 요구하는 것은 그가 지난 시기 겪은 인생행로와 관련이 있다.

리명박집권초기인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때 당시 친박계였던 김무성은 당내 친리명박계의 정치적보복으로

민생은 외면하고

후보추천에서 밀려나지 않으면 안되었다. 친박계가 주도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때에도 그는 여러 문제들에서 현 집권자와 의견을 달리한 것으로 하여 《배신자》의 오명을 받고 추천에서 또 다시 밀려나지 않으면 안되었다. 《전략공천》의 미명하에 두차례에 걸쳐 후보자리에서 밀려났으므로 하여 김무성은 그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더우기 《새누리당》내에서 비록 대표라고는 하지만 지반이 약한 그로서는 《전략공

반대로 친박계는 비박계의 주장대로 《완전국민경선제》를 실행할 경우 《총선》에서 밀려나는 것은 물론이다. 뿐만 아니라 친박계는 성 쌓고 남은 돌처럼 친대박는 리명박의 신세를 보면서 다음기 《대선》 후보로 저들의 인물을 내세워 현 《정권》을 계속 유지해보려는 흥심으로부터 비박계가 주장하는 《완전국민경선제》를 완강히 반대하고있는 것이다.

보수집권세력의 권력야욕으로 차례지는 남조선정국의 혼란상은 비단 이것만으로 그치

는 것이 아니다.

매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획정에서 지역구수가 줄어들것으로 예상되는 강원도, 충청북도 등 여러 지역의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농어촌의 지역대표성을 없애버린다.》는 미명하에 저들의 밥그릇이 빼앗길 것이 두려워 《국회》앞에서 련일 시위투쟁을 벌리고있어 정계의 혼란만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너무도 살기 힘들어 비판하여 자살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최소한 삶의 보장을 위해 사람들이 거리에 떨쳐나서는 현실은 외면한채 《총선》을 6개월 앞둔 벌써부터 자과의 리익과 권력야욕을 위해 싸움질로 날과 날을 보내는 보수집권세력의 추태는 남조선인민들의 비난과 조소를 자아내고있다.

민심이 바라는 정치가 하지 않고 권력싸움으로 세월을 보내는 권력사환군들에게는 앞날이 없다.

본사기자 김응철

로동당세력이 좋아 공화국의 인민들은 로년에도 인생의 청엽을 노래하며 복된 삶을 누려가고있다.

로동당창건 일흔돐이 가까와왔다고 속삭이는듯 환희롭게 펼쳐진 올해 10월 초하루 조국땅에서 펼쳐진 행복님친화축을 놓고서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그날은 국제로인의 날이었다. 이날을 맞아 공화국의 어디서나 흥겨운 노래소리가 울려 퍼졌다.

년로자, 공화국에서는 그들을 단순히 로인으로 여기지 않는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땀과 열정을 바친 혁명선배로 존중하고 내세워준다.

년로자들의 건강과 생활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봐주고있으며 로인들을 존중하고 우대하는 것이 전인민적인 감정으로, 하나의 사회적 흐름으로 되고있다.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합각지붕의 조선식건축물로 특색있게 솟아난 평양양로원과 같이 돌보아줄 혈육이 없는 년로자들도 나라의 은정속에 마련된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나날이 젊어지고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여생을 즐겁게 보내고 있다.

하기에 이전같으면 성 쌓고 남은 돌에 비유되던 년로자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요직책에서 로당직장하고있고 퇴직후에도 나라에 보탬되는 밑거름이 되고자 젊은 시절의 그 열정 그대로 애국의 마음을 바쳐가고있는 것이다.

공화국의 년로자들이 부르는 《세월이야 가보라지》의 노래소리는 어머니조국의 사랑속에 누리는 복된 삶의 메아리이다.

한 언론이 보도한 기사제목이다.

그 언론은 지난해만도 60세 이상 고령층범죄자는 21만 6313명으로 전체 범죄자 10명중 1명이 로인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리유는 경제적빈곤이 우선이고 다음으로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는데 있다. 만성적인 빈곤으로 로인들의 삶의 환경이 너무 취약하다보니 불만이 쌓이고 이판사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범

문에 밀려나고 경제적능력이 없거나 가정에서도 버림받고 쥐눈썹만 한 년금도 전체 로인의 25%밖에 받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니 가정과 사회에서 버림받은 로인들이 같길은 범죄와 자살의 길밖에 없는 것이다.

남조선의 어느 한 상점에서 있는 일이다.

한 로인이 돈무는 곳에 섰는데 그가 쓴 모자에서 퍼물이

버림받은 로인들은 자기들의 처지를 사회적분노로 표출한다고 한다.

지난해 5월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라남도의 장성호사량요양병원의 화재참사의 범죄자는 82세로인였고 같은날 서울 지하철도에서 전동차안에서 미러 준비한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것도 71세의 로인이었다.

2008년 남조선인민들을 충격에 몰아넣었던 승례문방화사건

으로 남조선은 세계적으로 로인자살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되고있다.

오죽하면 남조선의 언론들도 《로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큰 재앙이다.》, 《〈한국〉은 세계적인 로인자살왕국》, 《〈한국〉의 부모들은 세계적으로 가장 불행하다.》라고 평하는 정도이다.

남조선에서 로인들이 이처럼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된 것은 결코 자식들이나 이웃들 탓이 아니다.

황금만능, 약육강식만이 생존방식으로 되는 자본주의체제에 그 근원이 있고 재벌들과 특권층만을 옹호하는 반인민적인 정치가 계속되고있기때문이다.

그것이 사람들을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돈의 노예로, 뺨혈인간들로 제조해내고있는 것이다.

백발을 날리며 황혼기의 청춘을 노래하는 공화국의 로인들, 가을날의 락엽보다도 못한 신세로 시들고 병들고 불우한 생을 마치는 남조선의 로인들, 두 운명의 대비에서도 인권의 천국과 지옥이 어디인가를 알수 있다.

본사기자 김정혁

백발의 청춘, 버림받는 락엽

돌아보는 인생길엔 열매익어 주렁지고 바라보는 여생길엔 행복님칠 우리 생활 우리 당을 받들어서 한생토록 젊으리니 세월이야 가보라지 우리 마음 늙을소나

인생의 가을에도 푸르른 젊음으로 행복의 노래를 부르는 공화국의 년로자들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비참한 생활이 남조선에 존재하고있다.

《범죄자 10명중 1명은 60세 이상 로인, 년 21만명》 이것은 얼마전 남조선의

죄를 저지르는데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라고 밝혔다.

너무도 끔찍한 소식이고 너무도 험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남조선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소고한 것이다.

지난해 남조선의 로인빈곤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나라들의 빈곤률의 4배로서 수치의 제1위를 기록하였다.

현재 남조선의 로인인구수는 650만명인데 절반나아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있다고 한다.

일할 능력이 있어도 나이때

떨어지는 것이었다.

종업원이 머리를 다친 줄 알고 기겁을 하여 그 로인의 모자를 벗겨보니 머리우에 훌쩍 삼겹살고기가 있었다는 것이다.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도적질을 해야만 했던 눈물겨운 희비극이다.

고아라는 말은 부모없는 아이들을 가리킨다. 하지만 자본주의세계에서 홀로 늙어가며 자신을 부양할 혈육이 없는 로인들이 늘어나면서 《로인고아》라는 《신조어》가 사용되고있다고 한다.

혈육들로부터, 사회로부터

도 70대로인이 사회에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불을 지른 것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전과가 없던 사람들도 퇴직후에는 경제적빈곤과 가정과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범죄의 길에 들어서는데 로인범죄자 5명중 3명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

그렇수도 없는 로인들은 한 많은 세상을 저주하며 자살의 길을 택한다.

죽지 못해 살다가 우울증에 걸려 목숨을 끊는 로인들이 하루 평균 13명에 달하고 로인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66.9명

으로 남조선은 세계적으로 로인자살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되고있다.

오죽하면 남조선의 언론들도 《로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큰 재앙이다.》, 《〈한국〉은 세계적인 로인자살왕국》, 《〈한국〉의 부모들은 세계적으로 가장 불행하다.》라고 평하는 정도이다.

남조선에서 로인들이 이처럼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된 것은 결코 자식들이나 이웃들 탓이 아니다.

황금만능, 약육강식만이 생존방식으로 되는 자본주의체제에 그 근원이 있고 재벌들과 특권층만을 옹호하는 반인민적인 정치가 계속되고있기때문이다.

그것이 사람들을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돈의 노예로, 뺨혈인간들로 제조해내고있는 것이다.

백발을 날리며 황혼기의 청춘을 노래하는 공화국의 로인들, 가을날의 락엽보다도 못한 신세로 시들고 병들고 불우한 생을 마치는 남조선의 로인들, 두 운명의 대비에서도 인권의 천국과 지옥이 어디인가를 알수 있다.

본사기자 김정혁